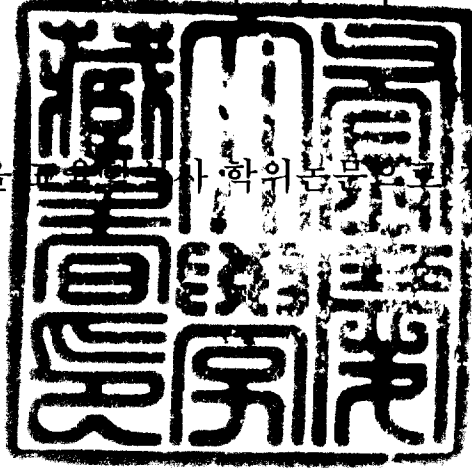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전통설화의 교육방법 연구

지도교수 권 진 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이 연 순

이연순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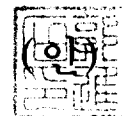
주 심 문학박사 김 쾌 덕



위 원 문학박사 고 순 희



위 원 문학박사 곽 진 석



목 차

영문초록	i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5
3. 연구방법	8
4. 연구대상	8
II. 근원설화와 재구된 텍스트 비교 분석	11
1. 내용 분석	12
2. 인물 분석	40
3. 구조 분석	47
4. 주제 분석	53
III. 설화의 교육 방법	56
1. 내용 교육의 방법 : 텍스트 해석하기	61
2. 인물 교육의 방법 : 역할 분석	67
3. 구조 교육의 방법 : 장면 만들기	71
4. 주제 교육의 방법 : 비판력 기르기	75
IV. 결론	85
참고 문헌	87

표 목차

<표 1> 내용 분석	38
<표 2> 용왕의 인물 유형	42
<표 3> 자라의 인물 유형	44
<표 4> 토끼의 인물 유형	46
<표 5> 공간적 배경의 대립 구조	49
<표 6> ‘위기-극복’의 반전 구조	50
<표 7> 강과 약의 대립 구조	51
<표 8> <수궁가>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대칭관계	52
<표 9> 주제 분석	55
<표 10>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	58
<표 11>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별 활동내용	60
<표 12>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텍스트 해석)	66
<표 13>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역할 분석)	70
<표 14> 문단의 요점	73
<표 15>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장면 만들기)	74
<표 16>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비판력 기르기)	80
<표 17> 토끼와 자라에 대한 자신의 의견	81
<표 18>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83
<표 19> 내가 하고 싶은 역할	84

A STUDIES ON KOREAN FOLK TALE TEACHING METHOD

Lee-Yeon So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raditional folk tales constitute the archetype of our ethnic spirit. They have become the fundamentals of our creative imagination and we can find our past, present, and the future that we should pursue. These days, children are more fascinated by western myths. This is very undesirable situation because it supports the evidence that today's children are very unfamiliar to our tradition. However, children have met traditional folk tales, regardless of their will, thorough various media. After some errors, they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e ethnic lives in the folk tales.

Then, how should we educate the traditional folk tales to the children? As folk tales have been transmitted by people, they contain the thoughts of the mass at that time. Children living in 21st society may not be able to feel exactly the same feeling of the times that was made. We have to make our children more familiar to the folk tales and recognize the ethnic spirit. What we should do here is to provide the teaching methods which can reconstitute and recreate folk tales in today's viewpoint.

In the second chapter, I would stud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original narrative and reconstructed text. Then, I would analyze them in the categories of content, characters, structure, and the theme.

In content analysis I would summarize,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s, the adds and subtracts of scenes.

In character analysis I would study the opposition between the incident and the incident, characters' talks and behaviour so that we can presume their personalities.

In structure analysis I would study the way of leading narratives, repetition of chronological incidents, confrontation of the characters and the world.

In theme analysis I would analyze the main thoughts in readers' position.

In chapter three, I would propose the teaching methods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through play', based on the 'Analysis of original folk tales and reconstructed text'.

Dramatic play is constituted of four steps.

The first step is the process of content recognition, in other words, interpreting text. It contains reading comparative text, understanding the narrative, and summarizing.

The second thing is the process of studying characters, which means to analyze the roles. In the second step, analyzing role and character is important. Through this process, learners can read the text out loud so that they can get their linguistic expression.

The third is to study the structure. We can understand the relationship or opposition between the roles and also, can see the development of story.

Final step is to study the theme through discussion. Children can share their ideas and criticize one another. At this point, learners can analyze the theme if the text in their own point of view.

Children accept folk tales in various sights. Desirable education is to accept other kids' opinions and to point out the problems with their own insight.

Folk tales have been newly interpreted, charged, and recreated as time goes by. We should understand our folk tales as traditional ethnic culture which can also contain the today's contemporary concept. Dramatizing is text-making process which is interpreted and changed by this contemporary concept. Through 'dramatic play', children can meet folk tales more interestingly and can raise their judgement and creative imagin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설화는 민족의 집단생활 속에서 공동의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이전의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설화는 민족 집단 무의식의 原形(Archetype)을 이루면서 창조적 상상력의 근간이 되어, 우리의 과거와 현재, 함께 나아가야 할 미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요즘 서점에서 아동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책은 서양신화 <그리스·로마 신화>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서양의 이야기보다 푸대접을 받으며 아동들과 친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전통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동들에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전통설화를 아동들이 접하는 매체를 살펴보면 TV시청, 만화, 전래동화집, 교과서 등이 있다. 더우기 현재 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과서에는 예전보다 많은 전래동화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연히 아동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통설화를 접하게 되고, 설화 속에 깃든 민족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전통설화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 나라 아동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집에 수록된 설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신앙, 충·효·우애·신의 등의 윤리, 민족의식, 민중들의 생활의

멋과 지혜·꿈과 소망·지배계층에 대한 저항, 웃음과 재치, 해학과 풍자 등 매우 다양하다.¹⁾

또 설화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지형(기지, 유머, 명재판), 훈계형(과욕, 노력, 선덕악화, 후덕, 형제 우애 등), 보은형(보은, 효성), 보복형, 渴福形, 신비형(미지에 대한 공포, 神助, 왕의 신비) 등으로 나뉘어진다.²⁾

설화는 민중을 통해 전승해 왔으므로 그 속에는 당연히 설화 형성 당시의 민중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 행위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어떠한 고난도 극복한다는 낙관론, 민담적 운명론, 넓은 권위나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강한 민중성 등이 설화의 내용과 주제를 형성한다.

설화의 주제 가운데 유머를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기지, 은혜를 잊지 않는 보은,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하는 권선징악 등은 현재를 살아가는 아동들에게도 교훈적 전범이 된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설화 형성 당시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는 없다. 오늘의 어린이들이 쉽게 우리의 전통설화를 접하고 그 속에 깃든 민족의 집단 무의식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동시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교육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설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첫째, 전통설화를 원형 그대로 이야기하는 방법, 둘째, 설화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이해력과 비판력을 키우는 방법, 셋째, 오늘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아동 스스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설화와 문학과의 관계에서 설화가 어떻게 문자로 수용되면서 창조적으로 전승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다.

1) 최운식 외,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38쪽.

2) 여영택, 「전래동화의 연구」,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1964.

설화가 소설화할 때에 생기는 변화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외형적인 변화이다. 구전으로 전승되던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고, 분량이 많아지며, 어느 부분이 확대·강조되거나 삭감·윤색되기도 한다.

둘째, 구성적인 면에서의 변화이다. ‘옛날 어느 곳에’ 등의 모호하던 배경이 소설화의 과정에서 구체적 배경으로 바뀌고, 등장인물의 수가 증가하여 인물의 성격과 역할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며, 단순하던 사건이 복잡하게 구성된다. 또 설화가 영웅의 일생임에 비해 소설은 일대기적 형식으로 변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립과 반복의 형식, 반대에 의한 발전의 형식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표현방법의 변화이다. 문체는 긴 설명과 자세한 묘사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넷째, 주제의 변화이다. 주제는 더욱 구체화되어 복잡한 사건을 통하여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설화를 소설로 수용한 대표적인 작품은 天官과 庾信의 설화인 천관사 전설을 소재로 재해석한 김동리의 「차라리 내 목을」, 명주가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황순원의 <비늘>, 도미설화를 소설화한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 온달설화를 변형하여 재창조한 최인훈의 <온달>, 장자못 전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변형 재창조한 한무숙의 <돌>, 풍수와 장수설화를 소재로 재구한 김동리의 <황토기>, 꽃 전설에서 소재를 취한 오영수의 <소쩍새> 등이다.

현대시에서의 설화 수용과 변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설화 내용을 재진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작품의 예로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시화한 서정주의 <단군>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둘째, 설화를 詩의 소재로만 수용하는 방법이다. 형제투금 설화를 소재로 취하여 구성한 서정주의 <노나 가진 금일랑은 강물에 던지고>와 같은 작

품이 그 좋은 예이다.

셋째, 설화를 수용하되 재창조하여 시적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작품으로는 설화를 수용한 서정주의 <춘향유문>, <추천사>, <꽃밭의 독백>, <수로부인의 얼굴>과 김춘수의 <처용단장>, 김소월의 <접동새> 등을 들 수 있다.³⁾

설화는 희곡 작품에도 많이 수용되고 있다. 희곡에서는 전통설화를 제재로 수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되,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작품의 효과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최인훈의 아기장수 설화를 재구한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문둥이 설화를 각색한 <봄이 오면 산에 들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설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둥둥 낙랑동>, 온달과 평강공주 설화를 재해석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살보시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재창조한 이윤택의 <바보각시> 등이 있다.

이처럼 설화는 문학작품의 제재로 다양하게 수용되어 그 의미가 현대적으로 재해석·재창조되고 있다. 우리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재창조된 작품을 통하여 설화를 동시대의 문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설화를 교육하는 목적은 민족의식의 원형을 이해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있다. 본 연구자가 텍스트로 정한 <토끼전>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구전설화로, 우리 나라에서는 『三國史記』에 실린 <귀토지설>이 가장 오래된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남겨진 문헌설화를 통해 오랜 이야기 한 토막에 담긴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내면화하고, 현대적 의미로 재구된 작품을 통하여 ‘원형과 재구의 비교 분석’이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설화를 해석하게 된다. 이를 통해

3) 임문혁, 「서정주의의 설화 수용과 시적 효과」, 『미원 우인섭 교수 정년퇴직기념 논문집』, 동 간행위원회, 1991.

설화에 대한 인식능력, 나아가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설화의 변용과 새롭게 해석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실제 교육과정에서 텍스트 읽기와 연극놀이 등을 통해 설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연구에서 전통설화를 교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다. 손동인은 그의 저서 『한국 전래 동화 연구』에서 전래 동화의 구조, 등장 인물의 성격, 배경, 호랑이의 성격, 교육적 진단, 효율적인 지도 방안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⁴⁾ 최운식은 「설화의 이해와 교육」에서 설화 교육의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口演을 통한 지도, 읽어주기와 읽히기에 의한 지도,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 등의 방법이 있다⁵⁾고 한다. 교수-학습에 의한 지도방법 중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극화활동이었다. 설화의 극화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장태덕⁶⁾, 오시환⁷⁾, 이명재⁸⁾, 정영철⁹⁾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전통설화의 극화활동을 통한 말하기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였다. 그중 안순빈은 「이야기-극화활동을 활용한 재량활동

4)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38쪽.

5) 최운식, 「설화의 이해와 교육」, 『설화 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38~40쪽.

6) 장태덕, 「전래동화의 극화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신장」,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7) 오시환, 「초등영어에서의 유창성 신장을 위한 동화극본중심 극화활동 지도 방안」,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8) 이명재, 「영어동화 극화학습을 통한 초등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방안」,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9) 정영철, 「전래동화를 이용한 극화활동이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모형연구」¹⁰⁾에서 극화활동을 통한 설화교육을 재량활동 학습의 한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박현순은 「동화를 활용한 동극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¹¹⁾에서 전래동화를 극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설화교육의 새로운 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전통설화가 문헌설화로 정착되어 창작된 전래동화의 극화를 통한 교육활동 성과 연구였다. 이에 반해 이경숙은 「한국 전래 동화의 가치와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¹²⁾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화 5편을 선정하여, 개별 동화의 가치 및 교육적 의의와 방법을 논의하였고, 송영숙은 「초등학교 전래동화의 효율적 지도 방안 연구」¹³⁾에서 아동들이 좋아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동적인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지도방안과, ‘가치내면화 수업모형’을 활용한 전래동화의 교육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염지경은 「구성주의 교육이론에 입각한 설화교육 방안」¹⁴⁾에서 기존의 설화 교육이 주로 읽기 활동에만 치중한 것에 비해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학이 함께 교육되는 통합적 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였고, 권선영은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 교육」¹⁵⁾에서 전통 이야기관에서 설화가 갖는 구술적 특징을 생활 속의 문학, 가치관의 반영에 따라 재창조되는 문학, 논쟁의 장으로써의 문학, 이야기판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학이라는 점으로 정리하여 현대 이야기판과 그곳에서 지속, 변화하

10) 안순빈, 「이야기-극화활동을 활용한 재량활동 모형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1) 박현순, 「동화를 활용한 동극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2) 이경숙, 「한국 전래 동화의 가치와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3) 송영숙, 「초등학교 전래동화의 효율적 지도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4) 염지경, 「구성주의 교육이론에 입각한 설화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5) 권선영,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는 구술성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 교육의 개념을 문학, 언어 사용능력, 문학 교육의 목표 설정에 바탕하여 구체화하고, 그 교육적 가치와 현 설화 교육의 문제점 해결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염우영 또한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¹⁶⁾에서 기존의 설화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설화를 보여주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를 수집하여 현대 사회의 이야기 문화를 영상화 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설화교육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운은 「<토끼전>의 교육방법 연구」¹⁷⁾에서 문학 텍스트가 고정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형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교육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3개의 이본을 동시에 교육 제재로 제공하여 이본들의 생산과정을 통해 형성된 텍스트의 다양한 특성들을 교육하는 방법(이본 비교, 상호 비판, 개작)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신정순¹⁸⁾, 권정인¹⁹⁾, 김미²⁰⁾ 등이 설화교육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중 박정운의 논문이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설화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설화 교육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설화가 극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근원설화와 재구성된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전통설화의 현대적 수용방안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아동들이 비판적 인식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열린 교육적 관점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

-
- 16) 염우영,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17) 박정운, 「<토끼전>의 교육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8) 신정순,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9) 권정인, 「설화교육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0) 김미, 「설화교육론 : 고등학교 설화교육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3. 연구방법

<토끼전>의 근원설화인 <귀토지설>²¹⁾, 소설로 이행된 <토끼전> 중에서 창본인 <수궁가>²²⁾, 어린이 창극대본인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²³⁾,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대본인 <토끼와 자라>²⁴⁾를 텍스트로 하여 내용, 인물, 구조, 주제를 각각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설화, 혹은 극화된 텍스트 비교분석을 통하여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설화의 변용과 새롭게 해석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게 한다. 또한 전통설화의 동시대적 서사 방식인 극화와 연극놀이를 통해 실제적인 이해와 체험학습 단계를 제시하여,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설화 속에 깃든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내면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4. 연구대상

설화가 동시대적 이야기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토끼전>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토끼전>은 『三國史記』 권 41 열전 <김유신조>에 실린 <귀토지설>을 근원설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귀토지설>의 근원설화²⁵⁾ 또한 인도의 本生說話로서 『자타카』에 수록된 <猿王本生>, <鰐本生>, <猿本生> 등이 있고 민간설화로서 『판차탄드라』,

21) 김부식, <귀토지설>, 『三國史記』 권 41 열전 <김유신조>.

22) 서대석편, 박봉술 창본 <수궁가>, 『구비문학』, 해냄출판사, 1997.

23) 류기형,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국립창극단 창극대본, 2001.

24) 정진수, <토끼와 자라>, 성균관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공연대본, 2003.

25) 민찬, 「토끼전 작품군의 우화수용양상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1997.

『가타사리트사가라』, 『마하바스투』에 수록된 작품들이 있다. 또 인도설화를 한역한 경전으로 『六度集經』, 『生經』, 『佛本行集經』이 있다.

인도의 本生說話에서 비롯되어 중국의 龍猿說話를 거쳐 우리나라의 <귀토지설>로 정착된 <토끼전>은, 판소리 <수궁가>를 거쳐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별주부전)>으로 소설화되었다가 신소설 <兎의 肝>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렇게 변모를 거듭하면서 내용의 가감 첨삭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는 판소리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변용을 거듭한 <토끼전>을 전통설화의 교육 방법론적인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4개의 작품을 비교 분석한다.

첫 번째 작품은 근원설화로서 『三國史記』 권 41 열전 <김유신조>에 실린 <귀토지설>이 그 대상이다. 두 번째 작품은 창본 <수궁가>이다. <수궁가>는 <토끼전>, <별주부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판소리계소설의 창본이다. 여러 이본 중에서 창본 <수궁가>를 선택한 이유는 뒤에 비교 텍스트로 사용되는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이 판소리 <수궁가>를 각색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창본 <수궁가> 중에서도 동편제 송만갑제를 계승하고 있는 박봉술창본²⁶⁾을 선정했다. 이는 이선유창본²⁷⁾에서 정광수창

26)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출판사, 1997.

박봉술창본은 동편제 중에서도 송만갑제를 계승하고 있는 창본이다. 이 이본은 모족 모임의 이유가 ‘잔치’로 설정되어 있고, 방해자로 ‘여우’가 등장하는 등 이선유창본보다는 후대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간단한 형태의 ‘소상팔경’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극히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여겨지는 ‘날짐승 상좌다툼’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정광수창본보다는 앞선 시기의 창본의 모습을 보인다. 이로 볼 때, 박봉술창본은 이선유창본과 정광수창본을 잇는 중간 단계의 창본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동건,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188쪽.)

27) 이선유창본은 여타 창본에 비해 사설이 간단하고 분량도 적어 전체적으로 축약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고고천변’의 앞부분에 부분 창작이 가미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여겨지는 ‘날짐승상좌다툼’과 ‘소상팔경’이 들어 있지 않고, 모족 모임의 이유와 토끼의 수궁행을 방해하는 인물이 가람A본과 같이 각각 회의와 너구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창본 가운데 비교적 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김동건,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본²⁸⁾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중간 단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본 <수궁가>는 너무 어려운 낱말과 한문투 문장들로 가득하여 초등학교 아동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전문학 작품지도에서는 훈고 주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²⁹⁾는 교육부 자료에 공감하며, 수업현장에서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석한 아동용 <수궁가>³⁰⁾를 제시한다. 세 번째 작품은 어린이 창극대본인 류기형 作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이다. 2001년 12월 국립창극단 공연을 위해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를 각색한 작품으로, 여러 유형의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삶의 교훈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수궁가>가 자라가 상징하는 충을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토끼의 재치와 자라의 우직함이 함께 부각되는 이야기로 만들어, 설화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해석되고 재창조된다는 점을 알게 한다. 네 번째 작품은 어린이 뮤지컬대본인 정진수 作 <토끼와 자라>이다. 교육연극용 연극놀이 대본으로 요즘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통하여 우리 전통설화의 현대적 수용방안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186~187쪽.)

28) 정광수창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궁가를 대표할 수 있는 창본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궁가는 대부분 동편제의 유성준제를 계승하고 있는데, 정광수창본은 유성준제 수궁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김동건, 『토끼전 연구』, 2003, 190쪽.)

29)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387쪽.

30) 아동용 <수궁가>는 창본(이현순, 『수궁가』, 초방, 2003.)과 소설본(이청준, 판소리동화 1 『수궁가 - 토끼야, 용궁에 베풀하러 가자』, 파랑새어린이, 2005.) 2가지를 모두 제시한다. 두 작품 모두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되어 있어 원형 그대로가 아닌 재구성된 의미로 재해석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본고의 의도와 맞아떨어진다.)

II. 근원설화와 재구된 텍스트 비교 분석

설화가 어떻게 동시대적 상상력과 구조를 가진 작품으로 재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텍스트 분석이다. 본고에서는 근원설화와 재구된 텍스트를 내용, 인물, 구조, 주제의 관점으로 비교 분석한다.

내용 분석은 줄거리를 요약하고, 배경 및 등장인물의 차이점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 어느 장면에서 가감 침삭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인물 분석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건의 대립, 인물과 인물간의 갈등관계 속에서 표출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물의 유형을 분석한다.

구조 분석은 사건의 서사방식,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사건의 반복 및 반전 구조, 인물과 인물·세계와 세계(배경)간의 대립, 세계와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약의 대칭 관계를 분석한다.

주제 분석은 작가가 시대 상황에 따라 인물 유형이나 중심 생각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독자의 시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봉건군주사회에서 평등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설화가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발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분석대상 텍스트는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이다.

1. 내용 분석

근원설화인 <귀토지설>,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의 창본 <수궁가>, 어린이 창극대본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어린이 뮤지컬대본 <토끼와 자라>가 텍스트이다. 각각의 줄거리를 살펴본 다음, 사건의 전개 순서에 따라 13단락으로 분류하여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설화의 원형이 어떤 가감 첨삭을 거쳐 판소리 창본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동시대성으로 거듭난 어린이 창극대본과 어린이 뮤지컬대본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 줄거리

(1) <귀토지설>

동해 바다 용왕의 딸이 병이 들자 의원이 토끼의 간을 약이라고 하였다. 이에 거북이 용왕에게 자원하여 토끼의 간을 구하러 육지로 떠났다. 거북이 토끼를 만나 “바다 가운데 한 섬이 있고 그곳에는 맑은 샘과 맛있는 과일이 많고 날씨도 적당하며 매나 독수리들도 없다.”고 하며 섬으로 가자고 유혹했다. 한 2, 3리 헤엄쳐 가다가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며 잡아가는 진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토끼는 “나는 신령의 후예이므로 간을 내어 썰었다가 다시 넣곤 한다. 마침 그것을 내어서 바위 위에 말려두었다. 나는 간이 없어도 사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돌아가자 했다. 거북은 오던 길을 되돌아와 토끼에게 肝을 달라고 하자 토끼는 비웃으며 풀속으로 도망치고 거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2) <수궁가>

세재(歲在) 지정(至正) 갑신년(甲申年) 중하월(仲夏月)에 남해 광리왕(廣利王)이 영덕전(靈德殿) 새로 짓고, 복일(卜日) 낙성연(落成宴)에 대연을 배설(排設)하여 삼일을 즐기더니, 해내(海內) 열풍(熱風)을 과(過)히 쏘여 병이 든다. 주야로 치병하나 명의 없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제 선의(仙衣) 도사가 내려와 토끼의 肝만이 명약이라 처방을 한다. 용왕은 수궁의 대신을 모아 놓고 육지에 나갈 사자를 고르는데 서로 다투기만 할 뿐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때 별주부 자라가 나타나 자원하여 허락을 받는다. 토끼화상을 가지고 육지에 이른 자라는 동물들의 잔치를 위한 모임에서 서로 다투다 호랑이가 상좌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자라는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실수로 호랑이를 불러 위기에 처하지만 지혜로 극복하고 산신제를 지낸다. 그 후 토끼를 만나 수궁에 가면 높은 벼슬을 준다고 유혹하면서 지상의 어려움을 말한다. 자라의 수궁자랑에 술깃해진 토끼가 수궁행을 자청할 때 여호(여우)가 나타나 방해를 한다. 그러나 별주부의 뛰어난 口辯에 속은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이른다. 간을 내라는 용왕 앞에서 자라에게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는, 피를 내어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한다. 이에 용왕은 토끼를 크게 환대하며 다시 육지에 가서 간을 가져오라고 한다. 자라와 함께 육지에 이른 토끼는, “어떻게 간을 내놓고 다니느냐?”고 자라에게 욕을 하면서 나쁜 약(암자래 하루 일천 오백 마리씩 석달 열흘 땔여 멕이고, 복쟁이 가루 천석을 만들어서 오대대를 크게 지어)을 처방하고는 숲으로 사라진다.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안 자라는 하릴없이 수궁으로 돌아간다. 토끼는 좋아라 날뛰다 그물위기와 독수리 위기를 맞이하나 피로써 모두 극복한다. 나중에 토끼는 월궁으로 올라가고 용왕은 우연히 쾌차한다.

(3) <토끼와 자라의 용궁 여행>

아주 오랜 옛날 동해바다 물 속에서 궁궐을 새로 짓고 매일같이 술과 노래로 세월을 보내던 용왕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쓰러진다. 용궁에서는 의원들을 불러 용왕의 병을 살피고 처방을 하지만 병은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 간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온 신선이 용왕의 병을 살펴보더니 육지에 있는 토끼의 간을 즉효라 가르쳐주고 사라진다. 용왕은 멀고 험한 육지 세상에 나가 토끼의 간을 구해 올 신하를 ^참는다. 그러나 수궁대신들은 저마다 못 가겠다며 싸움질만 하고, 결국 용궁의 충신 별주부 자라가 토끼간을 구해오겠다며 육지를 향해 나선다.

한편 금강산 기슭에서는 온갖 산짐승들이 모여서 인간들의 못된 짓을 욕하는 산중회의를 하고 있다.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산신제를 지낸 후에 토끼를 만난다. 자라는 토끼에게 육지에서의 고난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며, 용궁에 가면 훈련대장 벼슬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여 용궁으로 데려온다.

아무 것도 모르고 수궁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 앞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꽤 많은 토끼는 간을 뱃속에서 빼내 육지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용왕과 수궁대신들을 속여 용궁에서 육지로 돌아온다. 그 후 자라는 금강산 깊은 숲속에서 천년 묵은 산삼을 구해 용왕을 살리게 되고, 토끼는 숲 속 짐승들에게 용궁 얘기를 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달나라로 갔다.

(4) <토끼와 자라>

옛날 옛날에 제주도 남쪽 바다 깊은 곳 산호와 진주와 온갖 보석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용궁 속에 어질고 훌륭한 용왕님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님께서 갑자기 병이 나셨다. 이때 마침, 제주도 한라산에 백일기도하러 뚝단배를 타고 남해 바다를 지나던 중국 산둥 반도의 백운도사가 뱃전을 스쳐가던 돌고래들로부터 용궁의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달려와 진찰하고는, 조선 땅 지리산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토끼의 생간을 먹으면 병이 나으리라고 한다. 용궁에서는 어족회의가 열렸지만 아무도 토끼를 잡으려 갈 신하가 없다. 이에 용왕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이제는 서로 가겠다고 다투기까지 한다. 이때 별주부 자라가 나서서 토끼를 말로써 유혹하여 데려올 생각이라 하여 사신으로 택출된다. 용왕의 심부름으로 토끼를 잡으려 모험을 떠난 용감한 자라는 마침내 긴 여행 끝에 육지에 다다랐으나 난생 처음 본 신기한 육지의 광경에 얼이 빠질 지경이었다.(푸른 하늘과 구름과 눈부신 태양과 푸른 들과 바위와 온갖 나무와 꽃과 풀 그리고 기기묘묘한 각종 짐승들.) 마침내 토끼를 만나 온갖 거짓말로 유혹한 자라는, 드디어 토끼를 등에 태우고 험난한 물길을 헤치고 무사히 용궁으로 돌아왔다.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용궁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용왕님과 용궁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만세를 불렀다. 천신만고 끝에 토끼를 잡아온 자라. 그러나 벼슬을 준다는 자라의 꾀에 속은 것을 깨달은 토끼는 배를 갈라 죽음을 당하기 직전 다시 꾀를 내어 간을 집에 두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자라와 함께 간을 찾으러 다시 육지로 간다. 마침내 육지에 도달하여 목숨을 구하게 된 토끼는, 간을 요구하는 자라를 바보라고 놀린다. 자라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바위에서 떨어져 죽으려 한다. 그 때 토끼가 팔짝 팔짝 뛰어 다니다가 텃에 걸리게 되고, 마음씨 착한 자라가 쇠줄을 끊어 텃을 풀어 준다. 자라의 도움으로 텃에서 풀려난 토끼는 마음씨 착하고 충성심이 가륵한 자라에게 토끼의 간 대신 용왕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초를 구해 준다. 이렇게 해서 자라는 토끼에게 산삼 한 뿌리를 얻어 용궁으로 돌아왔다. 용

왕은 산삼을 달여 먹고 병이 나아서 자라에게 큰 상을 내리고 용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다.

나. 내용 분석

내용분석을 위해 단락을 나누어 분석한다. 단락은 <토끼전>의 사건전개 순서에 따라 ① 배경 설명, ② 용왕 득병, ③ 명약 지시, ④ 어족회의, ⑤ 별주부 전승, ⑥ 별주부 출륙, ⑦ 모족회의, ⑧ 별주부 호난극복, ⑨ 별주부 토끼 유혹, ⑩ 토끼 수궁행, ⑪ 토끼 수궁 위기 극복, ⑫ 토끼 출륙, ⑬ 결말의 13개 단락으로 나눈다.³¹⁾ 분석과정에서 텍스트의 배경 및 등장인물의 차이점, 사건의 전개에 따라 어느 장면에서 가감 침삭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1) 제 1단락 : 배경설명

시간적, 공간적 배경 설명이 있는 단락이다.

시간적 배경으로 <귀토지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는 설화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옛날 옛적에’라는 모호한 시간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궁가>는 ‘지정 갑신년 중하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설화가 소설로 변모하면서 생기는 변화 중 하나이다. 『삼국사기』에 실린 문헌설화 <귀토지설>이 창본 <수궁가>로 자리잡기까지는 1200여 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끊임없이 구구 전승되어 판소리 <수궁가>가 형성됐다. <수궁가>에 언급된 구체적 시간 배경으로 인해 판소리 관객들은 좀 더 현실감 있게 작품에

31) 이는 김동건의 분류를 참고하였다.(김동건,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92~93쪽.)

접근하고 나름의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동극으로 재구성된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과 <토끼와 자라>에는 시간적 배경이 근원설화와 같이 ‘옛날 옛날에’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아동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는 동화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간적 배경이 <귀토지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은 동해로 언급되어 있고, <토끼와 자라>, <수궁가>는 남해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대본으로 재구성된 <토끼와 자라>에는 ‘제주도 남쪽바다 깊은 곳’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섬 제주도, 유람 잠수함을 타고 바다 속 비경을 즐길 수 있는 제주도 남쪽 바다가 작품 속에 녹아들어 친밀함과 더불어 독자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한 꿈을 심어 주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작품이 전개되면서 공간적 배경은 수궁과 육지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전개된다. 덧붙여 <귀토지설>을 제외한 세 비교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배경, 즉 천상세계와 인간세계가 작품 속에 존재하고 있다. 명약을 지시하는 자는 천상에서 내려 온 도사들이다. 토끼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육지에서 그물(덧)에 걸리게 되는데 이 그물(덧)은 초동들이 놓아 둔 것이다. 즉 용왕의 명약을 지시하는 천상세계와 토끼에게 위협이 되는 인간세계가 작품 속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제2단락 : 용왕 득병

근원설화 <귀토지설>에는 득병자가 동해 용왕의 딸이다 그것이 소설화되면서 용왕으로 바뀐다. <수궁가>에서는 남해 광리왕,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동해 용왕, <토끼와 자라>에서는 남해 용왕이 각각 득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왕이 병이 났다함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적인 중대사로서 온 나라가 근심에 쌓이게 된다. 득병 원인 또한 다양하다. <귀토지설>에는 득병 원인이 나와 있지 않고 <토끼와 자라>에서는 갑자

기 병이 난 것으로 되어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용왕이 궁궐을 새로 짓고 큰 잔치를 베풀다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났다고 한다. 이는 <수궁가>에서 영덕전 낙성연으로 인하여 득병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병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는데, 신하들의 구병 노력을 보면 더욱 확실하다.

용왕이 병이 나자 신하들이 용왕을 살리기 위하여 구병 노력을 한다. <귀토지설>과 <수궁가>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삼신할미의 간단한 사설로 “갖은 치료를 다 해봐도 별 효험”이 없음을 알리고 있다. <토끼와 자라>에서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다. <수궁가>에 용왕을 살리기 위한 구병 노력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용왕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삼신할미 : 헛데 이게 웬일이냐. 수궁에 용한 의원 다 불러들여 진맥을 보고 좋다는 약 다 써보고 갖은 치료 다 해봐도 별 효험을 못보고 하루하루 죽는 날만 기다리는구나.

<토끼와 자라> : 노래2. “알 수 없는 병”

우리는 남해바다 최고 의사들 이 세상 어떤 병도 다 고치는 척척박사 눈과 귀 감기 몸살 두통에다 치통까지 어떤 병도 고치죠. 그렇지만 용왕님의 알 수 없는 병 정말 모르겠네. 우리 모두 항복.

<귀토지설>을 제외한 세 비교본 모두 병에 걸린 용왕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수궁가>에서 용왕은 권위와 위엄을 상실한 채 용궁이 진동하게 울음을 운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의 용왕 또한 위엄을 상실한 채 “악-!아-아이고 나 죽는다”고 부르짖고 있다. 이 대목에서 용왕의 성격과 작품 전체에 흐르는 풍자를 엿볼 수 있다.

<수궁가> : 탑상(榻上)을 탕탕 뛰다리며 용왕이 운다. 용이 운다. “천무열풍(天無熱風) 좋은 시절, 해불양파(海不揚波) 태평현덕, 용왕의 기구로되, 괴이한 병을 얻어 남해궁으

누웠은들 어느 뉘라 날 살릴거나? 의약 만세 신농씨(神農氏)와 화타(華陀), 편작(扁鵲) 노월(老越)이며, 그런 수단을 만났으면 나를 구원허련마는, 이제는 하릴없구나.” 용궁이 진동하게 울음을 운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악-!아-아이고 나 죽는다 (창조)태평성대 좋은 시절, 괴이한 병에 걸려 억울하게 죽는구나. 넓디 넓은 이 나라엔 내 병 고칠 의원이 없단 말이나. 답답헌 이내 마음 어느 뉘가 알아주리 아이고 아이고”

<토끼와 자라> : “남해바다에 이름 높은 의사들 가운데 나의 병을 고쳐 줄 의사가 하 나도 없다니, 오! 이제 나는 꿈쩍없이 죽게 되었구나! 오호호~”

(3) 제3단락 : 명약 지시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을 지시하는 단락이다. 텍스트마다 각기 다른 지시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나름대로 적절한 이유를 들어가며 토간만이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명약임을 주장한다.

(가) 지시자

명약 지시자는 <귀토지설>에서는 의원, <수궁가>에서는 선의도사,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신선, <토끼와 자라>에서는 백운도사이다. <귀토지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상에서 내려온 인물³²⁾로 과약풍편(果若風便), 돌고래 등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오게 된다. 지시자가 천상에서 온 인물이라 함은 또 다른 세계, 즉 천상공간이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귀토지설>의 평면적 배경이 세 비교본으로 오면서 입체적 배경으로 바뀔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궁가> : 현운(玄雲) 흑운(黑雲)이 궁전을 뒤덮어, 폭풍세우(暴風細雨)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선의(仙衣) 도사가 학창의(鶴鰲衣) 떨쳐입고 궁중으 내려와 재배이진(再拜而進) 왈, “약수(弱水) 삼천리 해당화 구경과, 백운 요지연(瑤池宴)의 천년벽도(千年碧桃)를 얻으라고 가옴다가 과약풍편(果若風便)으 듣사오니 대왕의 병세 만만 위중타기로 뵈옵고저 왔나니

32) <토끼와 자라>에서의 백운도사는 중국의 산둥반도에서 왔다고 하여 <수궁가>의 선의 도사나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의 신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사라는 자체가 일반인과 다르게 천하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는 인물임으로 천상인물의 범주에 넣었다.

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소리)하루는 오색 구름이 궁전을 뒤덮고 맑은 향내가 사방으로 두르더니 구름 속에서 한 신선이 내려와서 [신선] : (소리)백두산 천지를 가을다가 대왕의 병세가 몹시 위독하다기로 뵈옵고저 왔나이다.

<토끼와 자라> : 이때 마침, 제주도 한라산에 백일기도하러 뚝단배를 타고 남해 바다를 지나던 중국 산둥반도의 백운도사가 뱃전을 스쳐가던 돌고래들에게 용궁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나) 진맥과 처방

용왕을 진맥하여 발병 원인과 처방을 하는 대목으로 <수궁가>에는 간단한 약사설과 침사설이 있다. 이 부분은 설화가 소설화하면서 이야기가 부연된 부분으로 근원설화인 <귀토지설>에는 당연히 빠져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에는 <수궁가>에서 보이는 어려운 藥名과 해학적인 처방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아주 간단하게 서술할 뿐이다.

<수궁가> : <중몰이> “대왕님의 중한 형체, 인생(人生)과는 다른지라, 양각(兩角)이 쟁영(爭嶸)하여 말소리 뿔로 듣고, 턱(턱) 밑에 한 비늘이 거실러(거슬러) 붙었기로, 분을 내면 일어나고, 입 속의 여의주는 조화를 부리오니, 조화를 부리자면 하늘에도 올라가고, 몸이 적자 하거드면 못 속에도 잠겨 있고, 용맹을 부리자면 태산을 부수며 대해를 뒤집으니, 이 형체 이 정상으 병환이 나겼으니(나셨으니), 인간으로 말하자면, <жат은몰이> 간맥(幹脈)이 경동(驚動)하여 복중(腹中)으서 난 병이요, 마음이 슬프고 두 눈이 어둡기는 간경(간經) 음화(陰火)로 난 병이니, 약으로 논지허면, 주사(朱砂), 영사(靈砂), 구사(狗砂), 웅담(熊膽), 창출(蒼朮), 백출(白朮), 소엽(蘇葉), 방풍(防風), 육계(肉桂), 단자[丹砂], 차전(車前), 전설[蓮實], 시호(柴胡), 전호(前胡), 목통(木通), 인삼(人蔘), 가미육군자탕(加味六君子湯), 청서육가탕[淸暑六和湯], 이원익기탕(二元益氣湯), 오가탕(五加湯), 사물탕(四物湯), 신농씨 백초약을 갖가지로 다 써도 효험 보지를 못하리다. 침으로 논지허면, 소상(少商), 어제(魚際), 태연(太淵), 경거(經渠), 내관(內關), 간사(間使), 곡지(曲池), 견우(肩髃), 단중(中), 구미(鳩尾), 중완(中腕)이며, 삼리(三里), 절골[京骨], 심충[神庭], 사혈(瀉血), 갖가지로 다 주어도 회춘(回春)허지 못하리다.

(다) 兎肝 지시

여기서는 오직 토끼의 간만이 병을 낫게 한다고 처방하고 있다. 수궁에 사는 용왕에게 육지에서 강총거리며 돌아다니는 토끼의 간만이 약이 된다는

는 사실은 앞으로 수궁과 용왕에게 닥칠 크나큰 시련이 예상된다 하겠다.

<귀토지설> : “의원이 말하기를 토끼의 간을 구해서 약을 지어먹으면 낫는다고 하였다.”

<수궁가> : 진세(塵世) 산간에 천년 퇴간[千年退肝]이 아니며는, 염라대왕이 동성 삼촌이요, 강님 도령이 외사촌 남매간이라도, 신사이원(身死離遠), 누루 황, 새암 천, 돌아갈 귀하겠소.”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신선] : 인간세상 깊은 산중에 사는 토끼간이 아니 오면 존귀하신 대왕님의 목숨을 구할 길이 없나이다.

<토끼와 자라> : [도사] 조선 땅 지리산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토끼가 있는데 그 토끼를 산채로 잡아다가 생간을 잡수시면 용왕님의 병은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라) 兎肝 명약 이유

수궁에는 토간이 없다. 수많은 약들 중에 오직 육지에 사는 토끼의 肝이 약이 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궁가>에서는 음양오행과 상생 상극의 이치로 설명하고 있고, <토끼와 자라>에서는 토끼가 깊은 산속을 돌아다니며 좋은 약초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약이 된다고 한다. <수궁가>가 형성되던 당시는 해학과 풍자, 골계가 주류를 이루며 판소리가 만들어졌다. 판소리 唱者는 토간이 명약인 이유를 음양오행이나 상생 상극의 이치로 노래하여 聽者로 하여금 더욱더 흥미를 가지고 작품에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아동들에게는 좀 더 합리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수궁가> : “그 어찌 신농씨 백초약은 약이 아니 되웁고 자그마한 거 퇴간이 약이 된단 말이오?” 도사 가로되, “대왕은 진(辰)이요, 토끼는 묘(卯)라, 묘을손(卯乙巽)은 음목(陰木)이요, 간진술(艮辰戌)은 양토(陽土)인데, 갑인진술(甲寅辰戌)은 대강수(大江水)요, 진간사산(辰艮巳山)은 원속목(元屬木)이라, 목극토(木克土)하얏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

<토끼와 자라> : [용왕] 이 세상에 진귀한 약은 이 바다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산 속의 토끼 간이라야 합니까? [도사] 조선 땅 지리산 토끼는 이름 모를 진귀한 약초를 뜯어먹고 사는 짐승이라 반드시 토끼의 생간이라야 합니다.

(4) 제4단락 : 어족회의

(가) 자라의 사신 택출

어족회의가 열리자 그 충성스럽던 신하들이 사신으로 가기를 기피하며 서로 티격태격 싸우게 된다. 이 때 별주부 자라가 사신을 자원한다. 이 단락에서 용왕에 대한 별주부의 충성심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귀토지설>에는 거북이 ‘자신이 구해오겠노라’ 자원한다. <수궁가>에서는 천거, 자원, 용왕의 지명 등을 통해 몇몇 신하들이 물망에 오르고 이에 대해 다른 신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³³⁾된다. 여기에 거명되는 신하들은 거북 - 조개 - 메기 - 방게의 순으로 나타나며, 나중에 엉금엉금 기어 나타난 별주부가 상소를 올려 자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어족회의가 ‘서로 충신이라고 그렇게 잘난척하던 신하들이 서로 못 간다고 니가 가라! 니가 가라 떠밀며 싸움질’까지 하는 난장판이 된다. 그때 별주부 자라가 자원하여 상황은 마무리된다. <토끼와 자라>에서는 서로 용왕의 눈치를 살피며 기피하다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자 서로 가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때 별주부 자라가 자원을 한다. 문어가 자라의 작은 몸집을 문제삼으며 이의를 제기하자, 자라는 “토끼와 싸우지 않고 다만 말로써 유혹하여 데려올 생각”이라고 한다. 용왕은 자라의 지혜를 높이 사서 사신으로 택출한다.

<수궁가> : <중몰이> 왕이 툭툭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割股事君) 개자추(介子推)와 방초망신[楚亡身] 기신(紀臣)이는 죽을 임군을 살렸건마는, 우리나라도 능신(能臣)은 있건마는, 어느 뉘기라서 날 살리리요.” 정언(正言) 잉어가 여짜오되, “세상이라 허는 곳은 인심이 소박(疎薄)하와, 수국인갑(水國鱗甲)곧 얼른하면(언뜻하면) 잡기로만 위지[爲主]를 하니, 지혜 용맹이 없는 자는 보내지를 못허리다.” “승상 거북이 그럼 어떠하뇨?” 정언 잉어가 여짜오되, “승상 거북은 기락이 널렸삽고(널르웁고), 복판이 모도 다 대모(玳瑁)인 고로, 세상으를 나가 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떨어, 대모 장도(粧刀), 밀이개 살창, 탕건 묘또기, 주일썸지 끈까지 대모가 아니며는 혈 줄을 모르니 보내지를 못허리다.” “아서라, 그러면 못 쓰겄구나. 방첨사 조개가 그럼 어떠하뇨?”

<아니리> “아서라, 그러면 못쓰겄다. 수문장 미에기(메기)가 그럼 어떠하뇨?”

33) 김동진, 앞의 책, 112쪽.

공론(公論)이 미결(未決)될 적에, <진양>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족(隱目短足)이요 장경오해(長頸烏喙)로다. 홍배 등에다 방패를 지고 앙금앙금 기어 들어와 국궁 제배(鞠躬再拜)하며 상소를 올리거날, <아니리> 떼어 보니 별주부 자래라. "네 충성은 지극 허나, 세상에를 나가며는 인간의 진미가 되어 왕배탕(王背湯)으로 죽는다니, 그 아니 원통 허냐?" 별주부 여짜오되, "소신은 수족이 나시오라, 강상에 동실 높이 떠 망보기를 잘하와 인간의 붕폐(逢弊)는 없사오나, 해중지소생(海中之所生)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畵像) 하나만 그려 주시면 꼭 잡어다 바치겠습니다.", "아, 굴랑 그리하여라.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이리하여 용왕은 수궁의 모든 신하를 불러들여 토끼간을 구해오라고 명을 내렸었다. 허나 서로 충신이라고 그렇게 잘난척하던 신하들이 서로 못 간다고 나가 가라! 나가 가라 떠밀며 싸움질까지 벌여졌구나.

[용왕] : 시끄럽다! 이놈들아.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토끼는 구해오지 못할 망정 웬 싸움질이나. 외구 내 신세야. 이 수궁엔 정녕 충신이 없단 말이나.

[삼신할매] : 넓디넓은 물속 나라에 충신이 없을소냐. 그때여 보잘것없는 벼슬을 하던 별주부 자라란 놈이 '신 별주부 자라, 대왕님전 아뢰나이다. 소신이 이 한 몸 바쳐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습니다'하고 나섰구나.

<토끼와 자라> : [용왕] 오늘 여러 신하를 부른 것은 나의 병을 낫게 해 줄 약을 구하러 육지에 다녀올 용감한 신하를 찾기 위함이요. 누가 육지로 가서 지리산 골짜기에 사는 토끼를 사로잡아 오겠오? (모든 신하들 서로 눈치를 살피자, 용왕은 한 숨을 길게 내쉬며 말하기를) [용왕] 이번 일에 성공하면 장차 그 신하에게 이 나라의 왕위를 물려주겠소. (이 말에 모든 신하들 앞 다투어 서로 나서려고들 아우성이다.)

(이때 늦게 도착한 한 신하가 앞에 나서는데 그는 워낙 걸음이 느리기로 소문난 자라이다.) [자라] 용왕님,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이 자라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이 성공한다 해도 왕위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용왕님의 병이 나으시지만 바랄 뿐입니다. [신하들] (이구동성으로) 아니, 저런 굼벵이를... 용기도 없고 재주도 없이 무얼 하겠다고... 정말 기가 막히군...(등등) [용왕] 자라의 충성심은 가늠하나 위험한 산중에 어찌 다녀올 수 있단 말인가? [자라] 저는 비록 걸음이 늦사오나 네발이 있어 부지런히 걸으면 누구보다 산을 잘 오를 수 있고 목을 쏙 빼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으며 위험한 적이 나타날 땐 목을 움츠리면 바위 덩어리로 알 것이니 염려가 없습니다. [문어] 허지만 그 작은 몸집으로 어찌 토끼를 산 채로 잡아오겠느냐. [자라] 저는 토끼와 싸우지 않고 다만 말로써 유혹하여 데려올 생각입니다. [용왕] 과연 자라의 말이 옳도다. 그럼 당장 출발하도록 하라.

(나) 토끼 화상 그리기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가는 별주부 자라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여러 화공들을 불러 토끼 화상을 그리게 한다. <귀토지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는 이 부분이 없다. <수궁가>에는 사실로, <토끼와 자라>에는 노래로 토끼를 묘사하고 있다. <수궁가>의 사설은 古事成語를 활용한 문장을 통하여 아주 사실적으로 토끼를 그리고 있는데 반해 <토끼와 자라>에서는 단순하게 아동들의 시각으로만 토끼를 그리고 있다.

<수궁가> : <중중물이> 화사자(畵師子)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洞庭) 유리(琉璃) 청홍연(靑紅硯), 금수추파(錦水秋波) 거북 연적(硯滴),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兩頭) 화필을 덩벽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 명산 승지 강산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 지지 울 제 소리 듣던 귀 그리어, 봉래, 방장 운무 중의 내 잘 말던 코 그리고, 난초, 지초, 원갓 향초, 꽃 따먹던 입 그리어, 대한 엄동 설한풍의 방풍(防風)허던 털 그려, 만화방창(萬花方暢) 화림(花林) 중의 펄펄 뛰던 발 그려, 신농씨 상백초(嘗百草) 이슬 털던 꼬리라. 두 귀난 종곳, 두 눈 도리도리, 허리난 늘찢(늘찢), 쫓지난 묘목,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라. 녹수 청산의 해굽은 장송(長松), 휘늘어진 양류(楊柳) 속, 들락날락 오락가락 앙그주춤 기난 김생, 화중퇴(畵中退) 얼끗 그려, “아미산 월(蛾眉山月)의 반륜퇴(半輪退 |) 이어서 더할소냐. 아나, 옳다, 별주부야, 내가 가지고 나가라.”

<토끼와 자라> : 노래3 “토끼의 초상”

토끼 얼굴 그리세 깊고 깊은 산골짜기 바위 틈에 숨어 살며 강총 강총 뛰어 다니는 토끼의 털은 눈처럼 희조. 두 귀는 종곳 빨간 눈과 입 긴 다리 짧은 꼬리 작은 코 산토끼 토끼 산토끼 토끼 얼굴 그랬네. (커다란 흰 종이에 각자 검정 매직펜으로 토끼의 일부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그려 넣는다.)

(5) 제5단락 : 별주부 전승

이제 별주부 자라는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육지로 가야 한다. <귀토지설>에는 이 부분이 없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는 ‘별주부가 8마리의 물고기로부터 배웅을 받으며 나온다’는 지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토끼와 자라>에는 해설 ‘용왕님의 심부름으로 토끼를 잡으러 모험을 떠난 용감한 자라’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다. <수궁가>에는 다른 3개의 텍스트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모와 아내와의 이별 대목이 있다. 노모는 울며불며 못가게 만류할 하다, “나라에 환후 계옵서 약 구하리 가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 “충성이 지극하면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럼 수로 육로 이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너라.”며 충을 강조하는 태도로 바뀐다. 그러나 아내와의 이별에서 자라의 태도는 노모에게 대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내가 너를 못 잊고 가는 일이 하나 있다.”, “재너며 남생이란 놈이 제조에(주제에) 덧붙임 사촌간이라 하여 두고 불곰불곰 자주 돌아 당기는 게 아마도 내 구망(久望)에 걸쩍지근혀. 그놈 몸에는 거 노랑내가 나고, 내 몸에는 고순내가 나니, 글로 징험(徵驗)해서 부대 조심허렀다잉.”하며 외설적인 표현으로 아내

의 정조를 의심하고 있다. 사신을 자원하고, 노모의 만류를 충으로 설득하는 군주에 대한 忠誠으로 가득찬 별주부 자라가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주부 자라의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 자라 역시 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제6단락 : 별주부 출륙

별주부 자라가 바다를 지나 육지에 당도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단락이다. <귀토지설>에는 ‘마침내 육지에 올라’로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는 별주부가 해상을 지나면서 바라본 풍경과 육지 풍경 묘사로 되어 있고, <토끼와 자라>에는 육지 묘사로만 되어 있다. <수궁가>의 ‘고고천변’은 古事成語가 동원된 재미있는 이야기다. 청자는 노래를 들으며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는 흥겨움에 빠지게 된다. 현대적으로 재구된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에는 별주부의 출륙 장면이 아동들의 시각으로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수궁가> : <자진중모리> 고고천변 일륜홍(皐皇天邊日輪紅) 부상(扶桑:해 뜨는곳)으 높이 떠 양곡(洋谷)으 잦은 안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예)장촌(豫章村) 개 깃고 회안봉(回雁峰) 구름이 떴구나 노화(蘆花)난다 눈되고 부평(浮萍)은 물에 등싱 어룡은 잠자고 잘새는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에 파시추(波始秋), 금색 추파가 여기라 앞밭로 벽파를 찍어 당겨 뒷밭로 창랑을 탕탕 요리조리 저리요리 앙금등실 떠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地廣:땅 넓이)은 칠백리 파광은 천일색인디 천외무산십이봉은 구름 밖으로 가 멀고 해외소상(海外蕭湘)은 일천리 눈앞으 경이라 오초(吳楚)난 어이허여 동남으로 버려있고 건곤은 어이하야 일야에 등실떠 남훈전(南薰殿) 달 밝은디 오현금도 끊어지고 낙포(洛浦)로 둥둥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관(武關)속으 초희왕으 원혼이요 모래속에가 잠신하야 천봉만학(千峰萬壑)을 바라보니 만경대 구름속 학선이 울어있고 칠보산 비로봉(秘廬峰)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무울차(稽山罷霧鬱嵯峨) 아산은 칭칭 높고 경수무풍 아자파(鏡水無風也自波:바람이 불지 않아도 물결이 저절로 인다.) 물은 풍풍깊고 만산은 우루루 루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송은 낙낙(落落) 늘어진 잡목 평퍼진 떡갈 다래몽둥 칙닝쿨 머루다래 이름 넘출 능수버들 벗날기 오미자 치자 감 대추 갖은 과목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 칭칭 감겼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白鷗奔飛:갈매기 이리 날고) 갈매기 해오리 목파리 원앙새 강상 두루미 수 많은 때평이 소천자 기관허던 만수문전의 봉황새 양양창파(洋洋滄波) 점점 사랑허다고 원앙새 칠월칠석 은하수 다리놓던 오작이 목파리 해오리 너새 중경새 아옥따옥 요리조리 날아들제 또한 경개를 바라보니 치어다 보니 만학천봉이요 내려굽어보니 백사지라에 구부러진 늙은 장송 광풍을 못이기에 우줄우줄 춤을 출제 시내유수난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쭈

루루루를 저골물이 팔팔 열에 열두골 물이 한데로 합수쳐 천방저 지방저 월특저 구부저 방울이 벽큼저 건너 평풍석에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대하수중으로 내려 가느라고 벽큼이 북쩍 불농월이 뒤트러저 어루루루 펄펄 뒤둥구러저 산이 올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잔말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네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소리)푸른 바다 저 멀리 붉은 해 굵실 떠 실바람에 놀랜 파도 황금 물결 넘실넘실 자옥한 물안개 사방으로 흩날린다. 삼천리 금수강산 동해바다 여기라 앞발로 푸른 파도 짝이 당겨 뒷발로 흰 물결 탕탕 요리 저리 저리요리 양금 등실 떠사면 경치를 바라봐 (음악이 간주로 들어가며 배웅했던 물고기와 헤어지고 무대 위는 금강산 풍경이 펼쳐지자 별주부, 어리둥절해 한다)

자 라 : (소리)하늘은 높고 땅은 넓고 금강산 일만 이천봉 병풍처럼 둘러있고 위르르르 쏟아지는 폭포수는 백옥을 뿌리듯이 천하절경 금강산 조물주의 걸작이로다.

<토끼와 자라> : 노래4 "육지의 노래"

(여) 나는 태양, 온 세상을 비추조 낮이 가면 밤엔 달님에게 빛을 넘겨주조. (남) 나는 구름, 하얗게 떠다녀요.

밭에서 농부들 땀 흘리면 내 그림자로 해를 막아주조. (남) 나는 푸른 들, 멀리 멀리 퍼져 있어요. 누런 곡식과 채소와 온갖 꽃들을 가꾼다요. (남) 나무와 짐승도 보살 핀 다요. (여) 나는 산들바람, 언덕을 넘어 기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즐겁게 춤추며 날아다니면서 나는 소나기, 마른 땅 적시고 온 동네를 깨끗이 하고요. 강물 따라 바다로 가요.

-그러나 난생 처음 육지에 온 자라는 신기한 육지의 광경에 얼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구름과 눈부신 태양과 푸른 들과 바위와 온갖 나무와 꽃과 풀 그리고 기기묘묘한 각종 짐승들.)

(7) 제7단락 : 모족회의

<귀토지설>과 <토끼와 자라>는 이 부분이 없다.

<수궁가>에서 모족회의는 잔치를 위한 모임이다. 호랑이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동물들이 서로 자기가 상좌에 앉기 위해 쟁쟁을 펼친다. 이들은 노루 - 너구리 - 멧돼지 - 토끼 순으로 다툼을 벌인다. 그러나 호랑이가 나타나자 호랑이에게 상좌를 물려주고 슬그머니 사라진다. 멧돼지가 자기 새끼를 호랑이의 먹이로 갖다 바치는 장면에서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가렴주구를 엿볼 수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모족회의를 “못되고 나쁜 사람들을 욕하는 회의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육지동물들이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극복하고자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권력에 대한 욕망은 숨어 있다. “잠깐! 호랑이 대왕이 오질 않았

으니 우리들 중에 저 높은 자리에 앉을 짐승을 뽑는 게 어떻겠소?” 하며 길짐승 상좌다툼을 벌인다. 동물들은 사슴 - 곰 - 멧돼지 - 고라니 - 원숭이 - 여우 순으로 다툼을 벌이다 호랑이가 나타나자 상좌를 물려준다. 상좌다툼을 할 때 이들의 다툼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 사슴과 곰은 나이가 많은 자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나이가 많음은 곧 경험이 많음을 뜻한다. 경험이야말로 지배계층의 필요 충분조건이라 여기며 서로 나이가 많다고 주장한다. 멧돼지는 현대 사회의 지배원리인 경제력이 지배 계층의 기준척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쟁장에 뛰어든다. 고라니는 학벌이 지도층 인사의 필수조건이라 생각하는 인물로 쟁장에 참여한 인물들의 학력을 묻는다. 멧돼지는 초등학교 졸업임이 밝혀져 탈락하고, 원숭이가 서울대 출신임을 내세우며 상좌다툼에 나선다. 그러자 여우가 해외 유학과임을 내세우며 나서지만 산군 호랑이가 나타나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호랑이가 나타나자 어김없이 산군의 횡포가 시작된다. 이 때, 토끼가 산군 호랑이를 제지하며 먼저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자 제안한다. 이때 인간을 “어린아이 유괴하고 미성년자 매춘하고 형제간에 싸움질 늙은 부모 내버리고 남의 물건 도적질 훔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못된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각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는 인간들의 비윤리적·반인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지저 먹고 끓여 먹고 즐내먹고 볶아먹고 다려먹고 무쳐먹고 튀겨먹고’에서 보여주듯 인간들이 산짐승에게 부리는 횡포는 비정하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하다. 작품의 또 다른 공간적 배경인 인간세계가 동물들에게 행하는 횡포를 여실히 고발하고 있는 단락이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일동 : “잡아먹고 지저 먹고 끓여 먹고 즐내먹고 볶아먹고 다려먹고 무쳐먹고 튀겨먹고 1. 몸에 좋다하면 몸보신 한다하여 곰 잡아 쓸개 먹고 원숭이 잡아 골 마시고 (후렴) 잡아먹고 지저 먹고 끓여 먹고 즐내먹고 볶아먹고 다려먹고 무쳐먹고 튀겨먹고 2. 노루 잡아 피 빨아먹고 사슴 잡아 빨 자르고 고기라 하면 멧돼지, 토끼, 노

루, 사슴, 두더지 지글지글 보글보글 쳐먹는데 환장하고 (후렴) 잡아먹고 지저 먹고 끓여 먹고 즐내먹고 북아먹고 다려먹고 무쳐먹고 튀겨먹고 3. 복부인 귀부인들 여우털폭도리 호랑이 가죽코트 호피지갑 호피 핸드백 호피 부츠 못 사 입어 안달하고 (후렴) 잡아먹고 지저 먹고 끓여 먹고 즐내먹고 북아먹고 다려먹고 무쳐먹고 튀겨먹고 4. 여기 저기 뒹을 놓아 이 골짜기 탕 저 골짜기 탕 탕탕탕”

(8) 제8단락 : 별주부 호난극복

별주부가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잘못하여 호랑이를 불러 화를 당하는 모습이다. 우직하고 사태파악이 힘든 자라의 모습을 보여 주다가, 위기 앞에서는 정면대응을 시도하는 별주부 자라의 또 다른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궁가>에서는 도량귀신을 내세우며 호랑이를 위협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토끼와 자라>에서는 호랑이에게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맛있는 먹이(사슴)를 제시하며 위기를 벗어난다.

<수궁가> :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송 덜송헌게 퇴퇴 퇴퇴 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 노니 침침 산중의 호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들고 내려오는다 <휘모리> 우리 수궁 퇴락하야 천여칸 기와집을 내 숨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철켜 떨어져 이 병신이 되었으니 명의더러 물은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허기로 도량귀신 잡어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나 쓸개 한 봉 못주겠나 도량귀신 게 있느냐 비수 겹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 앞으로 바짝 기여들어 도리랑 도리랑

<토끼와 자라> : [자라] 오, 이러다간 오늘 중에 토끼를 못 만나겠는걸. (호랑이가 다가온다) 이렇게 큰 짐승도 있구나. 산중에 어른인 모양인데, 이 친구라면 알겠지. 저, 실례합니다. [호랑이] 어디서 누가 날 부르지? [자라] 저는 용궁에서 온 자라인데 혹시 어딜 가면 토끼를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호랑이] 토끼? 토끼라면 나도 찾고 있는 중인걸. 누구 약을 올리나.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자라] 아이쿠, 말로만 듣던 호랑인가 보구나. [호랑이] 그래. 내가 호랑이다. 배가 고파 너라도 잡아먹어야겠다. [자라] 진 맛이 없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저 아래에서 사슴을 만났는데요. [호랑이] 그래? 틀림없겠지? (간다) [자라] 휴! 간신히 살았다. 토끼는 만나 보지도 못하고 호랑이 밥이 될 뻔했네.

(9) 제9단락 : 별주부, 토끼 유혹

별주부의 유혹 지략담이 나오는 단락으로 토끼와 자라의 지략대결이 시작된다.

<귀도지설>은 짧은 이야기라 간단한 유혹에도 토끼는 넘어간다.

세 비교본은 이 부분에서 토끼 만남, 산중에서의 유혹, 방해자 등장 - 방

해자의 정체·방해자의 수궁행 만류·토끼 변심·별주부의 방해자 참소, 수변에서의 유혹 등으로 많은 부분이 부연되어 전개되고 있다.

<수궁가>에서 자라는 토끼를 “토선생”으로 불러 호감을 산 뒤 남중일색(男中一色)이라 치켜세운다. 그리고 “화망살기(禍亡煞氣)가 비쳐서 세상에 있다가는 죽을 지경을 여덟 번이나 당하겄소.”하며 八難殺을 미끼로 던져, 토끼 스스로 자라에게 수궁 자랑을 청하게 만든다. 자라는 “에이, 또 수궁 경계 얘기하면 따라 올라고?”하며 속내를 감추고, 수궁에 가면 벼슬과 미인을 취할 수 있다고 은근히 유혹한다. 유혹에 빠져 수궁을 향해 나서는 토끼에게 방해자 여호가 등장한다. 토끼가 망설이자 자라는 여호를 수궁의 범법자로 몰아 세운다. 자라의 뛰어난 계략에 빠진 토끼는 의심없이 자라와 함께 수궁으로 향한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자라가 토끼를 만나기 전에 산신제를 지낸다. 그 후 자라는 토끼를 만난다. 자라는 육지에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토끼의 수난사를 발설하여 토끼를 곤란하게 만든다. 그리고 벼슬과 함께 수궁 미인을 취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의 덫을 놓아 토끼 스스로 수궁행을 결심하게 만든다. 이러한 유혹에 방해자가 등장한다. 하지만 여우의 방해에도 별주부 자라는 설득력 있는 언변과 뛰어난 계략으로 토끼의 수궁행을 더욱 확고히 한다.

<토끼와 자라>에서도 자라는 ‘온갖 보물, 계절의 변화가 없는 곳, 맛있는 음식’으로 토끼를 유혹하여 토끼 스스로 수궁행을 결심하게 만든다.

세 비교본 모두 별주부 자라의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토끼 스스로 수궁행을 결심함으로써 토끼와 자라의 지략대결에서 자라가 승리하는 장면이다.

<귀토지설> : “바다 가운데 한 섬이 있고 그곳에는 맑은 샘과 맛있는 과일이 많고 날씨가 적당하며 매나 독수리들도 없다.”

<수궁가> : <아니리> "대체 퇴선비 퇴선비 허더니마는, 얼굴이 남중일색(男中一色)이요, 발뻘시가 단정한 오йм쟁이이다. 우리 수궁에 들어가시면 훈련대장은 틀림없게 하겠으나, 미간에 화망살기(禍亡煞氣)가 비쳐서 세상에 있다가는 죽을 지경을 여덟번이나 당하겠소.",

<아니리> "대체 주부, 상은 잘 보요. 내 팔자가 하기는 영락없이 그렇게 생기는 생겼소. 그러면 어디 수궁 경계 얘기나 한번 해 보시오.", "에이, 또 수궁 경계 얘기하면 따라올라고?", "아니, 안 따라갈 테니 어디 얘기나 한번 해 보시오.", "수궁 경계 얘기하면 대번 당신 환장할 것이요. 우리 수궁 장허지요. 천양지간의 해위최대(海爲最大)하고 인물지내에 신위최영(神爲最靈)이라. 무변대해에다가 천여 간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호박 주추, 주란화각(朱欄畫閣)이 반공(半空)에가 번듯 솟았난디, <진양> 우리 용왕 즉위허사 만족(萬族)이 귀시(貴示)헌디 백년이 앙덕(仰德)이로구나. 왕모(王母) 금병(金瓶) 천일주(千日酒)와 천빈옥반(千賓玉盤) 담은 안주, 불로초 불사약 취토록 먹은 후에, 일흥(逸興)이 도도하면 미색(美色), 세악(細樂), 갓은 풍악을 대홍선(大紅船)에다 가득하니 실고 요지(瑤池)로 돌아들 적에, 칠백리 군산(群山)은 물 속에가 그려 있고, 삼천 사장 해당화는 약수(藥水) 불었구나. 해내 태평하여 월청명(月清明) 추강(秋江) 상의 어적(漁笛) 소리로 화답허고, 경수(溍水), 위수(渭水), 낙수(洛水), 회수(淮水), 양진(洋津), 포진(蒲津), 평야[彭], 소상(瀟湘), 흑거흑래(或去或來) 노닐 적으, 적벽강 소자침(蘇子瞻) 채석강(采石江) 이태백이가 이런 흥미를 알았으면 세상으서 왜 있으리? 원컨대 퇴서방도 나를 따라서 수궁을 가면 훈련대장은 헐 것이고, 미색계악[美色之樂]을 맘대로 다리고 만세 동락을 허오리다." <아니리> 토끼란 놈 듣더니, "대체 참 좋기는 좋은가부요. 꼭 그렇게만 될 테면 나 당신을 따라가겠소마는." "아, 되고 말고.", "아, 그러면 나 따라갈라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갈끄라우?", "같이 내려잡시다.", "그럼 같이 잡시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자라 "충명한 눈, 뱀시 있는 몸매, 날랜 발걸음, 생긴 모습 하나하나가 누구도 선생을 앞설 자가 없을 것이요. 우리 수궁에서 선생 같은 분은 큰 벼슬인 훈련대장 되어 부귀영화 다 누리고 수궁미인들의 인기를 혼자 다 차지하고 살 것이요.", "토선생,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토선생 얼굴 가만히 보니 이 세상에 있다 보면 꼭 죽을 팔자요.", "(소리)해마다 겨울이면 산봉우리 바람차고 골짜기에 눈이 쌓여 여러 날을 굶고 굶어 어둡고 추운 밤에 고른 배 끌어안고 바위틈에 오들오들 웅크린 그대 신세 가엾고 불쌍하다.", "봄이 오고 여름 오면 골짜기마다 눈이 녹아 풀이 돋고 꽃이 피어주린 배 채우려 먹이 찾아 나섰다가 빈틈없이 둘러쳐진 그물 뒤편에 덜컥 걸려 죽고", "(소리)용케 살아 가을이면 산중에 열매 많아 먹고살긴 좋은 때나 원수 같은 사냥꾼 총을 메고 달려들어 산토끼 간다! 쫓라! 탕! 탕! 탕! 날개 있어 날아갈까 두더지라 땅으로 들까 위급한 그대 신세 토선생의 세상살이 누라서 알아주리요", 토끼 : (기가 죽어)어찌 그리 잘 아시오? 내 팔자 꼭 그렇소. 헌데 내 사는 꼴이야 그렇고, 수궁 재미는 어떻게? 자 라 : 에이 수궁 얘기하면 따라올라고? 토끼 : (머뭇거리며 신경질적으로)안 따라갈 테니 얘기나 한번 해보시오. 자라 : 수궁 얘기 들으면 당신 환장할 것이요. (소리)우리 수궁 별천지라 용궁 보게되면 사호기둥과 황금지붕 갖은 보석 호화롭기 그지없고 집집마다 좋은 음식 불로초 불사약 실컷 먹고 한평생 누리니 이런 살기 좋은 곳이 이 세상에 또 있으랴. 토끼 : 여보 별주부. 내 평생 수궁구경허는 것이 소원이니 나 두말 않고 따라가겠소. 자라 : 그러면 그리합시다. 당장 잡시다.

<토끼와 자라> : [자라] 거짓말 마십시오. 방금 오다가도 호랑이를 만났지만 토 선생은 이곳에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을 텐데요. 그 뿐인가요. 육지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는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왔답니다. [토끼] 사실은 그렇다오. 그럼 용궁은 그렇지 않은가요?/ 노래6 "용궁 생활"

(일동 돌아가며 부른다) 깊은 저 바다 밑 아름다운 용궁엔 온갖 보물 넘치고 항상 파스한 곳 비바람 천둥도 번개도 없고 폭풍파 눈보라도 없는 곳 온갖 맛있는 음식 산처럼 쌓여 있고 아름다운 노래해 모두 평화롭게 춤추는 우리 용궁 언제나 즐거운 바다 밑 천국이라

네. [토끼] 정말 나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 주시겠요? [자라] 지금 당장요, 자, 어서 내 등에 올라타세요.

(10) 제10단락 : 토끼, 수궁행

이 단락은 용왕에게는 위기 극복의 기회이나 토끼에게는 절대 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귀토지설>에는 ‘한 2, 3리 해엄쳐 가다가’로 수궁을 향해 발을 옮겼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에는 자라와 함께 토끼가 무사히 수궁에 도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수궁가>에는 짧은 형태의 ‘소상팔경’이 나타나고 있고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 바다 풍경묘사가 나온다. 이 두 비교본에서 토끼는 수궁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래서 주변의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토끼와 자라>에는 간단한 해설로 수궁에 당도한다.

<수궁가> : 인제 헐 수 없으니, 내 등에 업히어서 곳곳이 이르게 구경이나 착실히 해라. 헐 수 없다.” 소상팔경(瀟湘八景)을 들어가는되, 이편을 가르키며 강남 지방이요, 저편은 고소성(姑蘇城)이라. 구름 밖에 솟은 것은 동정호 칠백리요, 하늘에 닿은 것은 시비의 한라산이라. 악양루(岳陽樓) 만정허고 파류[巴陵], 군산(君山) 돌아드니 경계가 처처(處處) 그윽허구나. 소상야우(瀟湘夜雨) 달 밖은되 창오모운(蒼梧暮雲), 황릉애원(黃陵哀怨), 무산낙조(巫山落照), 한산모종(寒山暮鐘), 평사낙안(平沙落雁), 원포귀범(遠浦歸帆) 팔경을 다 본 후에 양구로 돌아드니, 금계(金鷄) 소리가 쟁그렁 청 들리거늘, 토끼가 눈 들어 사면을 살펴보니 백옥 현관으 황금 대자로 새겼으되, ‘남해 영덕전 수정문’이라 뚜렷이 새겼거날,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소리)멀고 먼 푸른 바다 (여기야차) 사나운 물결이로구나(여기야) 동해바다 저 멀리(여기야차) 점점 수궁으로 들어갈 때(여기야차) 물속에 붉은 해 일출을 준비하여 찬란한 빛 뿜내고(여기야) 바닷속 해초는 일렁이는 물따라 흔들흔들 춤추고(여기야 여기야차) 이상요상 오색찬란 신비로운 산호초 높은 봉우리 깊은 계곡(여기야 여기야차) 금강산을 옮겼는 듯 물속의 아름다움 천하제일 경치로다(여기야 여기야디) 한곳을 당도하니(여기야디) 수궁세계 음악소리 은은히 들리거늘(여기야)눈을 들어 가만히 살펴보니 황금글씨로 동해용궁 수정문이라 (여기야 여기야디 여기야 여기야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토끼와 자라> : 온갖 거짓말로 토끼를 유혹한 끝에 자라는 드디어 토끼를 등에 태우고 험난한 물길을 헤치고 무사히 용궁으로 돌아왔습니다.

(11) 제11단락 : 토끼, 수궁 위기 극복

이 단락은 토끼 생포 → 용왕의 토간 요구와 토끼 묘책 → 용왕환대와 수궁잔치로 세분될 수 있다. 사건의 전개 상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은 별주부의 유혹지략담에 대립되는 토끼의 위기극복 지략담이 전개된다. 피지배 계층인 토끼를 통하여 봉건 전제군주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어 독자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 준다. 이는 그 당시 서민의식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가) 토끼 생포

<귀토지설>에서 토끼는 수궁에 도착하기 전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이 용녀의 약으로 잡혀감을 알게 된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는 토끼를 생포하자 자신이 토끼가 아니라고 발명하는 대목이 보인다. <수궁가>에는 “이놈, 네가 토끼냐?” 하자 “나, 토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나?” 하자 개 - 송아지 - 망아지새끼로 계속 발명을 하고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도 개 - 오리 - 소 - 돼지 - 엽기토끼로 발명을 하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엽기토끼 캐릭터를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훨씬 친근감 있게 다가서고 있다. 특히 나중에 “나 좀 생각하고 말해 주리다”고 하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배계층에 대한 한없는 조롱이라 볼 수 있다.

<토끼와 자라>에서 토끼는 수궁 벼슬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 갑자기 자신이 생포되었음을 깨닫는다. 과한 욕심이 낳은 결과이다. 독자는 이 대목에서 過猶不及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 용왕의 토간 요구와 토끼 묘책

수궁에 도착한 토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용왕은 자신의 병이 낳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용왕과 토끼는 생사를 다투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귀토지설>에서 토끼는 자라로부터 자신의 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간을 씻어 바위 위에 말려두었다’는 말로 위기를 극복한다.

<수궁가>에서 용왕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타인의 생명은 어찌되어도 상관없다. 죽은 후에 목비(木碑) 하나 세워 주고, 명절 때 제사만 지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조꿈도 죽는 거 한을 말고, 헐 말이 있걸 랑은 말이나 허고 그냥 죽어라.”에서 포악한 군주의 일면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도 용왕은 만백성의 아버지이기보다는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다. “과연 약되게 생겼다. 여봐라, 토끼 배 쪽 갈라 간을 더운 김에 내어 조금 찍어 두어서너 점 올려라.” 명령한다. 포악하기는 여기서도 결코 다르지 않다.

<토끼와 자라>에서 용왕은 “내가 병이 났는데 토선생의 간을 약으로 쓰면 낫는다고 하여 그대를 데려오도록 한 거요.”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남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1장에서 어질고 훌륭한 용왕이라는 언급이 있어 아주 조심스럽게 간을 요구하고 있다.

용왕이 토간을 요구하자 토끼의 대처능력이 4개의 텍스트 모두 같다. 토끼는 자신의 배속에서 간을 내어 맑은 계곡물에 씻어 바위(나무) 아래 숨겨두었다고 한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토끼의 위기극복 지혜이다. 토끼는 자라의 유혹 지략담에 대비되는 위기극복 지략담으로 용왕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다.

경망스럽고 허세만 부린다고 생각되던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다. <토끼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통쾌하고 짜릿한 장면

으로 토끼를 바라보는 독자의 시각을 180도 바꿔 놓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토끼의 위기극복 지략은 용왕에게는 씻을 수 없는 愚君의 이미지를 심게 된다.

<귀토지설> :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며 잡아가는 진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토끼는 말하기를 "나는 신령의 후예이므로 간을 내어 씻었다가 다시 넣곤 한다. 마침 그것을 내어서 바위 위에 팔려두었다. 나는 간이 없어도 사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수궁가> : "토끼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득병하여 명의한티 문의현주, 네 간이 으뜸이기로, 어진 신하를 세상에까지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한을 말어라. 너 죽은 후에도 목비(木碑)라도 해 세울 것이고, 네 육신은 안장하여, 정조, 한식, 단오, 추석 제사를 착실히 지내 줄 것이니 조금도 죽는 거 한을 말고, 험 말이 있걸랑은 말이나 허고 그냥 죽어라."

"소퇴의 간인즉 월륜(月輪) 정기로 삼겼삼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이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퇴곧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들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파춥앞에다 꼭꼭 짜서 칠노(칠당굴)로 칭칭 동여, 영주(瀛洲) 석상(石上)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上上)개비으 끝끝어리으다 달아매 놓고, 도화 유수 옥계변으 탁족(濯足)하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고 허기로 완경차(玩景次)로 왔나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용왕 : (토끼를 살펴보며)허허 그 놈, 눈구멍이 뻔하고 귀가 쫑긋한 것이 과연 악되게 생겼다. 여봐라, 토끼 배 꼭 갈라 간을 더운 김에 내어 조금 찍어 두어서너 점 올려라. /일동 : 예이! (망나니, 칼을 빼어들고 토끼에게 다가간다. 망나니 춤을 추고 토끼의 목을 베려 할 때) /토끼 : (대성통곡을 하며)아이고! 원통하오! 원통하오! 용 왕 : 이놈 토끼야. 네 작은 간으로 나의 목숨을 구한다면 이 수궁에서 너의 충성심을 길이길이 칭송할 것인즉 네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지어다. /토끼 : (소리)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이놈 뱃속에는 간이 없소이다. /용 왕 : (거짓말을 비웃듯이)뻔이! 네 뱃속엔 간이 없다고? /토끼 : (소리)예, 나의 간인즉 나뭇잎에 꼭꼭 짜서 금강산 비로봉 꼭대기 소나무 가지 위에 높이 높이 잡아매고 폭포수 맑은 물에 발 씻으러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풍경 좋다가에 구경 차로 왔나이다.

<토끼와 자라> : 용왕 : 그만 그만. 토끼, 그대가 나를 위해 해 줄 일이 있오. 내가 병이 났는데 토선생의 간을 약으로 쓰면 낫는다고 하여 그대를 데려오도록 한 거요. /토끼 : (다급하게)용왕님, 잠깐만요. 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급히 달려오느라 간을 빼놓고 왔지 뭐니까? /용왕 : 뭐라구? /자라 : 뱃속의 간을 어떻게 빼놓고 왔다는 거요? /토끼 :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내 배를 가르시오. 그러나 만약 간이 없으면 어찌겠오. (모두 망설인다) /토끼 : 저는 매월 보름이면 간을 꺼내어 씻어 말린 뒤 그믐에 다시 몸 속에 집어넣는답니다. /물개 : 도대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꺼낸단 말입니까? /토끼 : 이 두 귀를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넣고 왼쪽으로 꺼낸답니다.

(다) 용왕환대와 수궁잔치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한 토끼는 용왕의 환대 속에 용왕으로부터

“토공”으로 불리운다. 용왕과 “용게미” “토게미”라 호칭하며 우쭐대다 범치와 자라로부터 간이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된다. 그러나 토끼는 경망스러우면서도 거둬드는 기지와 용왕의 우매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용왕은 씻을 수 없는 愚君의 이미지를 얻게 된다. <수궁가>에서 용왕은 자라의 마지막 忠諫에, 자신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토끼를 생포해 온 자라까지도 정배를 보내겠다고 얼음장을 놓는다.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됨을 여실히 보여주는, 君主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는 暗主로 비치게 한다.

(12) 제12단락 : 토끼, 출륙

토끼가 수궁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육지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용왕: 토끼, 토끼: 자라의 대결 양상은 토끼의 승리가 된다. 이러한 상황은 수궁과 용왕의 위엄이 한없이 추락하는 계기가 된다. 작가군은 작품을 통하여 피지배계층의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폭정에 대한 항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통쾌한 승리이다.

<귀토지설> : 거북은 토끼의 이 말을 믿고 토끼를 도로 업고 돌아서서 육지로 올라갔다.

<수궁가> : <진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를 지내어 백로주를 어서 가자. 삼산을 바라보니 청천외어가 멀어 있고, 일락장사추색원(日落長沙秋色遠)하니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弔湘君)고. 한 곳을 바라보니 한 군자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문왈, “토공이 하이직차[何以至此]오?” 토끼 듣고 대답하되, “회족청산(回足靑山)하니 관불과제관(觀不過諸觀)이요, 탁족무림(濁足無臨)하니 태불과봉황(殆不過鳳凰)이요, 소무지식(素無知識)허고 유매평생(流魅平生)이라.” 그 군자를 하직하고 또 한 곳을 당도하니, 오호 창파(滄波)연월(煙月) 속의 돛대 치는 저 사공은 월(越) 범여(范) 아니런가. 하묘장강공자류[檻外長江空自流]는 등왕각(王閣)이 여그로구나. <중중몰이> 아서라, 다 바려. 백마주 바빠 지내여 적벽강을 당도. 소자첨(蘇子瞻) 범주유(泛舟遊) 동해 상달 떠온다. 두우(斗牛)간으 배회하여 백로횡강(白露橫江)을 함께 가. 소지노화월일선(笑指蘆花月溢船) 추강 어부가 무인배. 기경선자(騎鯨仙子) 간 연후 공추월지단단(空秋月之團團). 자래 등에다 저 달을 싣고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還山弄明月) 원해근산(遠海近山) 좋을시고. 토끼란 놈이 좋아라 강짱 뛰어 내려서더니, 이리 궁글고 저리 궁글 이리저리 넘놀 제, “얼씨구나 살았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일동 : 가자가자 어서 가자 그리운 고향산천 금강산으로
 어서가자 (후렴) 가자가자 어서 가자 어기여차 서둘러라. 그리운 고향산천 어서 바빠 가자
 꾸나 토끼 : 함께 놀던 친구벗님 어서 빨리 보고싶다 수궁정치 좋다지만 이젠 다시 안 갈
 란다 일동 : (후렴) 가자가자 어서 가자 어기여차 서둘러라. 그리운 고향산천 어서 바빠 가
 자꾸나 일동 : 여보시오 벗님네들 용궁여행 부러마소 멀고 험한 용궁여행 징글징글 징그럽
 소 (후렴) 가자가자 어서 가자 어기여차 서둘러라. 그리운 고향산천 어서 바빠 가자꾸나
 (과도소리 들리며 웅장한 음악이 쟁쟁 울린다)

<토끼와 자라> : 용왕 : 그럼 자라는 토끼와 함께 당장 육지로 떠나거라. 자라 : 네에.

(13) 제13단락 : 결말

토끼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결말부분으로 토끼의 비양과 복수,
 그 후의 토끼, 그 후의 별주부, 그 후의 용왕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가) 토끼의 비양과 복수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자라에게 온갖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
 찬한다. 또한 <수궁가>에서는 자라에게 “암자래와 복쟁이 가루로 약을 지
 어 먹여라”며 나쁜 약을 지시하여 복수를 하기도 한다.

(나) 그 후의 토끼, 별주부, 용왕

<귀토지설>에서는 거북이 가련하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돌아갔다. <수궁가>에서는 토끼가 그물 위기와 독수리 위기를 극복하고
 월궁에서 살게 되며 별주부는 수궁으로 돌아가고 용왕은 우연히 병이 낫는
 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 별주부는 토끼의 간 대신 천년 묵은
 산삼을 얻어 용궁으로 귀환한다. 용왕은 산삼을 먹고 병이 쾌차하고, 토끼
 는 용궁애기로 숲 속에서 지내다 훗날 월궁으로 올라가 달 속의 토끼가 되
 었다고 한다. <토끼와 자라>에서도 별주부는 토끼의 간 대신 토끼로부터
 산삼 한 뿌리 얻어 용궁으로 돌아간다. 용왕은 산삼을 먹고 병이 쾌차하고,
 자라는 충신으로 대접받는다. 어진 임금이기에 훌륭한 신하가 충성을 다하

여 용왕의 목숨을 살린 것이다. 온 나라에는 감동의 물결이 일게 된다.

<귀토지설>에서는 득병자가 용왕의 딸이었기에 거북은 토끼의 조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간다. 그러나 세 비교본에서는 득병자가 용왕이다. 용왕이 병이 났다 함은 개인적인 일이 아닌 국가적인 중대사이다. 그래서 <수궁가>의 용왕은 봉건절대군주로서 暗君이었지만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봉건 잔재의식에 의해 우연히 병이 낫는다. 그러나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태평성대 좋은 시절’을 연 용왕이었기에 산삼을 얻어 병이 완쾌된다. 특히 <토끼와 자라>에서는 ‘어질고 훌륭한 용왕님’이었기에 그 밑에 충성스런 신하 별주부가 존재하고, 토끼 또한 그러한 별주부의 충성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별주부는 토끼로부터 산삼을 얻게 되고, 용왕의 병이 쾌차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 둘 이 : 할머니, 수궁에서 나온 토끼와 자라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 미 : 음... 그래, 어떻게 됐는고 하니 금강산으로 토끼간을 얻으려고 쫓아 나신 별주부는 결국 간 대신 천년 묵은 산삼을 얻어 용왕을 살렸고, 토끼는 수궁에서 살아 나온 뒤 숲속 짐승들에게 용궁여행 얘기로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가며 행복하게 살았다는구나. 아마 저기 달 속에 있는 토끼가 그 토끼라지.

<토끼와 자라> : [토끼] 당신은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충성심이 가늠하므로 내가 나의 간 대신의 용왕님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약초를 구해 드리겠오. [자라] 그런 약초가 정말 있단 말씀이요? [토끼] 백운도사인가 하는 영감이 내가 이름 모를 진귀한 약초를 먹고산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산삼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따라오면 그대에게 산삼 한 뿌리를 캐어 주겠오. [자라] 오, 토 선생, 정말 고맙소. - 이렇게 해서 자라는 하는 수 없이 토끼에게 산삼 한 뿌리 얻어 가지고 용궁으로 돌아갔습니다. - 용왕님은 그 산삼 한 뿌리를 달여 먹고 신기하리만큼 씻은 듯이 병이 나아서 자라에게 큰상을 내리시고 용궁에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분석의 서술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내용 분석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배경설명		옛날	지정 갑신년 중 하월	옛날 옛날 아득 히 먼 옛날	옛날 옛날에
용왕 득병	득병자	동해 용녀	남해 광리왕	동해 용왕	남해 용왕
	득병원인	.	낙성연 후 海內熱 風 過히 쏘여	원인을 모름	갑자기 병이 남
명약 지시	지시자	의원	仙衣도사	신선	백운도사
	등장동기	.	果若風便	풍문으로 들음	돌고래가 전함
	토간지시	○	○	○(금강산兎肝)	○(지리산兎肝)
	명약이유	.	상생상극의 이치	.	진귀한 약초상용
어족 회의	사신논란	회의 없음	천거, 자원, 지명- 반대	신하들 기피, 용 왕 탄식	왕위 위해 다투 어 나섬
	사신	거북	자라(상소, 자원)	자라	자라
별주부 전송	노모이별	.	만류→忠으로 설득	.	.
	아내이별	.	만류	.	.
별주부 출륙		마침내 육지 에 올라	고고천변/바다육 지풍경	바다풍경, 육지 풍경	육지풍경묘사
모족 회의	상좌다툼	.	노루-너구리-멧 돼지-토끼-호랑 이(상좌)	사슴-곰-멧돼 지-고라니-원 숭이-여우-호 랑이(상좌)	자라 토끼 찾다 개구리, 사슴, 다 람쥐, 부엉이, 호 랑이 만남
	모임이유	.	잔치	회의(인간성토)	.
	산군 횡포	.	○	○	○

↳ 뒤쪽에 계속

앞쪽에서 연결됨 ㄱ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별주부	호난극복		·	○	○	○
	산신제		·	○	○	·
별주부	토끼유혹		○	○	○	○
	망해자		·	여호	여우	·
토끼 수궁행			2,3리 해엄쳐 가다	소상팔경	수궁경치(소리)	험난한 물길을 헤치고
토끼 수궁 위기 극복	토끼발명		·	개-송아지-망아 지새끼	개-오리-소-돼 지-엿기토끼	·
	토간요구		○	○	○	○
	토끼기변		○	○	○	○
	수궁환대		·	토공/범치 토간 누설/자라諫言	수궁잔치, 거북 토간누설	·
토끼 출륙			거북 되돌아 육지로	노정기	소리	마침내 육지에 도달
결 말	토끼 복수	토끼욕설	○	○	·	○
		나쁜 약	·	암자라/복쟁이	·	·
	토끼 그 후	그물위기	·	○	·	땃/자라의 도움
		독수리위기	·	○	·	·
		월궁행	·	·	달나라	·
	자 라	용왕약	·	·	천년 묵은 산삼	토끼-산삼 줌
		수궁귀환	○	○	○	표창
	수궁	용왕병	·	병 즉차	병 즉차	병 즉차

2. 인물 분석

작품 속 인물들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야기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하고 있는 <토끼전>에는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고 있지만 단연 토끼, 용왕, 별주부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변모하기도 하고, 다시 적대자의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이 다양한 관계 속에 놓인 토끼와 자라, 자라와 용왕, 토끼와 용왕의 관계 형성을 통해 이들의 성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용왕

용왕은 당대 권력층 최고 권위자의 투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토지설>에서 용왕이 병든 딸을 위해 거북을 시켜 토끼를 잡아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궁가>에서 병을 앓고 있는 용왕은 조금씩 그 권위를 잃고 해학과 풍자의 대상이 되어³⁴⁾, 위엄을 상실하고 있다. 병든 용왕이 영덕전에 홀로 누워 탑상을 땅땅 두드리며 ‘용궁이 진동하게 울음’을 울기도 하고, 만조백관이 入侍함을 바라보며 스스로 “어, 내가 이런 때는 용왕이 아니라, 팔월대목 장날 생선전의 도물주(都物主)가 되었구나.”하고 말하기도 한다. ‘생선전의 도물주(都物主)’와 같은 왕이니 危地에 토끼를 구하러 갈 신하는 ‘좌우 제신이 어두귀면지줄(魚頭鬼面之卒)’ 되어

34) 인권환, 「<토끼전>의 비교 고찰」, 『토끼전·수궁가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면면상고(面面相顧)에 묵묵부답(默默不答)’인 것이다. 토끼의 肝출입설에 우롱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토끼를 사로 잡아온 충신 별주부의 忠諫에 도리혀 “네 이놈들, 다시 토공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어망(漁網)살 앞으로 이놈들 정배(定配)를 보내리라!” 위협한다. 교묘한 토끼의 간출입 속임수에 속아넘어갈 뿐 아니라 그것이 虛言임을 諫하는 신하의 일깨움도 바르게 헤아리지 못하는 愚王이다. 이런 왕이면 이면적으로는 포악한 왕일 뿐 아니라, 표면적으로도 회화화된 愚王이 아닐 수 없다.³⁵⁾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 산중의 토끼 목숨 하나쯤 간단히 해치울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죽어간 토끼에게 死後에 간단히 공을 치하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君主이다. 이는 당시 우매한 봉건전제군주의 전형적인 사고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군주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존엄성을 지니지 못한 왕이다. 그래서 토끼로부터 “여보소, 용게미”라고 불리며 비하되고 있는 것이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의 용왕 또한 결코 존경받는 용왕은 아니다. 토간을 구하기 위한 어족회의에서도 신하들은 서로 싸움질만 계속하고, 별주부 자라의 자원으로 겨우 용왕의 체면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토간을 구하러 나간 자라가 소식이 없자 다시 어족회의가 열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에이! 어찌 이다지도 충성하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나? 약을 알면서도 쓰질 못하고 이대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어흐흐흐(흐느낀다)”에서 보듯이 더 이상 용왕의 권위는 살아나지 않는다.

근원설화를 제외한 세 비교본에는 결말 부분에 용왕의 병이 쾌차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비교본에서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 <수궁가>에서 용왕의 쾌차는 당대 인식의 한 향방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비록 위기상황이기는 하나 봉건국가는 유지되어야 하며 당면한 위기는 극복될 수

35) 최정락, 「<수궁가>와 <별주부전>의 서술방법 대비고찰」, 『안동대학 논문집』 제7집, 안 동대학출판부, 1985.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³⁶⁾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의 용왕의 쾌차는 ‘태평성대 좋은 시절’을 구가한 용왕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토끼와 자라>는 처음부터 ‘어질고 훌륭한 용왕님’이 갑자기 병이 난 것이다. 용왕은 처음부터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약을 구하기 위해 신하들이 서로 가겠다고 다투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별주부 자라가 처음부터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고, 토끼도 자라의 충성에 감복하여 산삼을 구해 주어 용왕의 병이 쾌차하는 것이다. <수궁가>에서는 한껏 희화화된 용왕이지만 국가 유지를 위해 용왕은 살아난다. 하지만 21세기 어린이극으로 되살아난 <토끼와 자라>는 국가 위기에 대처하는 백성의 도리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군주는 백성에게 존경받는 행동을 해야하며, 백성은 이러한 군주를 존경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지도자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된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용왕의 인물 유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용왕의 인물 유형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용왕의 인물 유형	당대 권력층 최고의 권위자로 강압적인 봉건 군주	자기 중심적이고 포악하며 우매한 봉건 전제군주의 전형. 君主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존엄성조차 지니지 못했다.	결코 존경받는 군주는 아니지만 태평성대 좋은 시절을 열었던 만큼, 충성스런 신하 별주부로 인해 용왕의 존재는 인정되고 병도 낫는다.	어질고 훌륭하며 위엄과 권위를 갖추고 있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음

36) 황진아, 「<토끼전>의 인물형상과 공간구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나. 별주부 자라

자라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토끼의 간을 구해오는 충신이다. 그러나 만조백관을 어물전의 생선으로 보는 暗主人 용왕은 이미 충성을 바칠 상대가 아니다. 그러한 왕을 따르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이기에 <수궁가>에서 자라는 여지없이 희화화되고 있다. ‘수 천년 되어서 살아봐도 먹지 못할’ 어미 자라의 자식이고, 아내에겐 의처증 있는 남편이다. 모족의 상좌다툼에서 토끼를 부른다는 것이 호랑이로 잘못 불리 죽을 위기를 자초한다. 육지에 토끼를 업어다 놓고 산천을 기어올라가는 토끼를 향해 “아, 여보시오, 토공. 아 죽겠다 살겠다 업어다 놓으니까 그렇게 모르는 체하고 가신단 말이요? 간이나 좀 갖고 오시오.” 하고 말하더라도 망가던 토끼에게 “제기를 붙고 발기를 갈 녀석”이라 욕을 먹기도 한다. 표면적이거나 거짓 충신의 엄숙함도 갖추지 못한 자라이다.³⁷⁾ 한마디로 사태파악이 안되는 것이다. 허나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강자인 호랑이에게 일생일대의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별주부는 우직하고 진지하며 상황판단력이 느리나 위기에는 행동으로 정면 대응함을 알 수 있다.³⁸⁾ 토끼의 거짓 허풍을 폭로하고 꽤 많은 토끼를 수궁으로 유인해 오는 전반부의 별주부 자라는 뛰어난 지략가로 언변과 기지, 꾀, 행동력을 모두 갖춘 영특한 인물로 묘사된다. 그러나 토끼의 간이 육지에 있다고 생각하며 간을 달라고 하는 자라에게서는 자신의 시각이 아닌, 충성스런 신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기 때문에 행동에 모순이 생기는 어리석은 인물이 되는 것이다.³⁹⁾ <귀토지설>에서의 거북, <수궁가> <토끼와 자라

37) 최정락, 앞의 글.

38) 진신재, 「별주부와 토끼의 인간상」, 『구비문학연구』 제6집, 구비문학연구회, 1998.

39) 황진아, 앞의 글.

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에서의 자라는 목숨을 걸고 천신만고 끝에 토끼를 잡아온다는 점에서 충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⁴⁰⁾

앞에서 살펴 본 자라의 인물 유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자라의 인물 유형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자라의 인물 유형	충성심이 뛰어나나 우둔하고 무능하다.	우직·진지하고 상 황판단이 느리나 위기에는 정면 대응한다. 전반에는 언변·기지·피·행동력을 모두 갖춘 영특한 인물로, 후반에는 자신이 아닌 충성스런 신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기에 행동에 모순이 생기는 어리석은 인물이다.	일관된 충을 보여주며 토끼유혹에 서는 치밀한 사고로 뛰어난 지략가의 면모도 보인다. 결국 충성심으로 용왕을 살리게 된다.	君主에 대한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충성스런 인물이다.

다. 토끼

<귀토지설>에서의 토끼는 꾀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략가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수궁가>에서의 토끼는 희화화되어 있다. 자라와의 첫 상면에서 문자를 거꾸로 써서 자라의 함소를 받기도 하고, 여호의 만류에 잠깐

40) 인권환, 앞의 글.

주저함을 보이다 다시 별주부 자라의 구변에 속아 수궁행을 결행하는 것이 그러하다. 수궁에서 경술함 때문에 간을 빼일 뻔하기도 하고, 육지에 당도 하여 ‘생방정을 떨’다 초동의 그물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독수리에게서도 똑같은 위기를 맞는다. 자기 스스로의 과오로 인한 위기다.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도 정서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웃음거리가 된 인물이다.⁴¹⁾ 그러나 경망스러우면서도 어느 순간 기지를 발휘하고, 허세를 부리는가 하면 치밀하고, 나약한 것 같으면서도 용맹스러우며, 굼뜬 것 같으면서도 민첩하고, 우쭐거리면서도 조심성이 있다.⁴²⁾ 자라가 처음 토끼를 만나 “저기 앉은 게 퇴생원 아니요?” 하고 불러 노니 토끼가 듣고서 깡쨍 뛰며 ‘요리로 깡쨍, 저리로 깡쨍, 호도독독 깡쨍 뛰고 놀다’에서 보듯이 애초부터 토끼는 경망스럽다. 그래서 용궁 벼슬과 일등 미색을 취할 수 있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에 대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는 치밀함과 변덕이는 기지로 위기를 모면한다. 수궁에서 용왕과 “용게미”, “토게미”로 교우하며 그 허세와 우쭐뎌는 극에 달한다. 그러다 수궁에서 벗어나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사태과악도 못하고 경망스럽던 예전의 토끼가 아니다. 위기를 지혜로 극복하고 나서 자궁심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토끼로 변모한 것이다.⁴³⁾ 육지에서 경망스럽게 뛰다 그물에 걸리고 독수리에 채이다가도 넘쳐나는 자신감으로 다시 위기를 극복해 간다. 토끼는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분명 발전해 간다. 경망스러움에서 치밀함으로, 우쭐뎌에서 자신감으로 나아간 것이다.⁴⁴⁾ 그래서 육지로 살아 돌아온 토끼의 말에서 구 시대의 사상을 비판하는 새로운 의식⁴⁵⁾을 엿보게

41) 최정락, 앞의 글.

42) 권순궁, 「〈토끼전〉의 인물형상과 풍자」, 『판소리연구』 제14집, 판소리연구회, 1999.

43) 권순궁, 위의 글.

44) 권순궁, 위의 글.

45) 한선영, 「〈토끼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된다. 여기서 토끼는 지배 계층인 용왕이나 수궁대신인 자라에 대립되는 피지배 계층인 서민을 나타내는 존재이다. 용왕의 권위가 비하되고 자라의 충이 비꼴의 대상이 될수록 토끼의 지위는 격상되면서 용왕과 자라에 대한 풍자는 더해만 간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 토끼는 모족 회의에서 산군 호랑이에게 직언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별주부가 “퇴선생”이라 부르자 경망스럽게 날뛰기도 하지만 수궁에서의 토간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은 대단하다. 수궁잔치에서 출랑거리다 거북의 재치에 다시 위기를 맞이하지만 지혜로 극복하는 대단한 지략가이다.

<토끼와 자라>에서의 토끼 또한 수궁에서의 벼슬에 대한 유혹에 빠져 생사의 위기에 봉착하나, 타고난 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인물이다. 생환한 육지에서 덧에 걸린 토끼는 자라의 도움으로 풀려나 자라에게 산삼을 구해 준다. 아마, 자라를 지배계층의 하수인이 아닌 동류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토끼의 인물 유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토끼의 인물 유형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토끼의 인물 유형	지혜롭고 생기 발랄하며 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지략가	경망스럽다가 순간 기지를 발휘하고, 허세를 부리다 치밀해 지고, 나약하면서 용맹스럽고, 굽튼 것 같으면서 민첩하고, 우쭐거리면	경망스럽지만 산군 호랑이에게 직언도 서슴치 않는 용감한 인물이다. 자라의 유혹에 빠져들어 수궁행을 결심한 것은, 모	피 많고 영리하며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덧에서 자신을 구해 준 자라에게 산삼을 구해주는 인정과 은혜도

	서도 조심성이 있다. 이처럼 발전을 거듭한 토끼는 육지로 생환하면서 구시대의 사상을 비판하는 새로운 의식을 보여준다.- 피지배 계층인 서민을 상징한다.	힘심과 함께 인간의 횡포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으로 보여진다. 수궁에서는 위기대처 능력이 뛰어나 지혜로 목숨을 건지는 인물이다.	아는 인물이다.
--	---	---	-----------------

3. 구조 분석

구조 분석은 사건이 전개되면서 사용되는 서사방식,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과 사건의 반복 및 반전 구조, 인물과 인물·세계와 세계(배경)간의 대립, 세계와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약의 대칭 관계를 분석한다.

가. 서사방식 - 속고 속이는 지략담적 방식

본고에서는 근원설화인 <귀토지설>의 서사방식을 살펴보고 근원설화가 어떻게 <수궁가>로 수용되었으며 또 재구된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과 <토끼와 자라>에서는 <수궁가>에서의 서사가 어떻게 확장·변모되었는지 살펴본다.

<귀토지설>의 성격을 규명한 논문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권환은 ‘토끼의 꾀가 강조되는 지략담’⁴⁶⁾으로, 윤성준은 ‘토끼와 거북의 속고 속

임을 축으로 하는 지략담'47)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원수는 '용왕과 거북이라는 인물구성과 용궁이라는 공간은 군신의 관계와 왕조를 나타내고, 이로써 사회 풍자의 길이 마련되었다'48)고 보고 있다. 김동건은 교훈적이고 사회적인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우화인 동시에 속고 속이는 설화의 형식적 재미도 아울러 갖춘 지략담49)으로 보고 있다. <귀토지설>에는 크게 두 번의 지략을 사용하고 있다. 거북이 토끼를 유혹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혹 지략담'과 토끼가 수궁 위기를 벗어나고자 사용하는 '위기극복 지략담'이 그것이다. <귀토지설>은 211자의 짧은 설화이기에 거북의 간단한 유혹으로 토끼는 수궁행을 결심한다. 그러나 다시 토끼가 거북을 속여 육지로 되돌아오는 속고 속임의 지략담50)이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토끼와 거북의 '지략 다툼'이 숨어 있다.51) 이러한 지략다툼은 <토끼전>에서 서사 확장되어 전개되고 있다. <토끼전>에 들어 있는 지략담은 통상 3가지로 볼 수 있다. 별주부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는 유혹 지략담, 토끼가 용왕으로부터 꾀로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극복 지략담, 길짐승들의 상좌다툼시 벌이는 쟁장 지략담이 그것이다. 창본 <수궁가>에는 토끼를 유혹하는 별주부의 유혹 지략담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길짐승들의 쟁장 지략담까지 서사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의 위기극복 지략담 역시 점점 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과 <토끼와 자라>에서는 길짐승들의 쟁장 지략담이 빠져 있

46) 인권환, 「수궁가의 삼입설화고」, 『인문논집』 제30집, 고려대 문과대학, 1985, 3쪽.

47) 윤승준, 『동물 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47쪽.

48) 이원수, 「<토끼전>의 형성과 후대적 변모」,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회, 1982, 192쪽.

49) 김동건, 앞의 책, 251쪽.

50) 이러한 지략 대결을 김열규는 '단초적 트릭'과 '대응 트릭'으로 명명하고 있다.

김열규, 「속임수의 명수들(1)」,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394쪽.

51) 김동건, 앞의 책, 254쪽.

고 지략 대결이 <수궁가>보다 단순하지만 그 과정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나. 공간적 배경 : ‘수궁 - 육지’의 반복 구조

<수궁가>의 공간적 배경이 ‘수궁 - 육지 - 수궁 - 육지’의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 <귀토지설>에서 ‘바다 가운데 한 섬’이라는 간단한 장소적 지시가 평면적 장소라면 <수궁가>에서의 용궁은 서로 다른 질서 속에 커다란 유기적이고 우화화된 현실 사회로 확대되면서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한다⁵²⁾고 볼 수 있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역시 ‘수궁 - 육지’로 공간배경이 반복·회전하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세 차례에 걸친 노정기가 공간 이동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된 노정기가 선보이고 있으며 <토끼와 자라>에서는 간단한 해설로 공간 이동을 하고 있다.

<표 5> 공간적 배경의 대립 구조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사건	공간				
발단	수궁	용녀 발병 의원 토간 지시	용왕의 발병과 도사의 토간 지시		
전개	육지	거북자원 숲에서 토끼 유인	자라의 자원과 육지 도착 및 토끼 유인		
위기	수궁	거북-토간 필요 설명, 토끼묘책	용왕의 토간 요구와 토끼의 묘책		
결말	육지	토끼 육지 생환과 거 북 돌아감	토끼의 육지 생환과 자라의 낭패		
	수궁	.	용왕 쾌차		용왕쾌차, 잔치

52) 인권환, 「<토끼전>의 구조와 주제」, 『토끼전·수궁가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다. 사건의 전개 : ‘위기 - 극복’의 반전 구조

사건이 전개되면서 전반에는 용왕의 ‘위기 - 극복’이, 후반에는 토끼의 ‘위기 - 극복’이 반복된다. 이 때 ‘수궁 - 육지’의 반복적 구조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배경의 변화와 사건의 전개가 반전의 구조로 맞물리면서 작품의 극적 흥미를 고양시키고 있다.

결국 작품 전체는 용왕과 토끼의 ‘위기 - 극복’의 반전 구조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을 통하여 긴장의 고조와 흥미 유발, 그리고 반전의 쾌감 충족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작품의 극적 효과를 점층적으로 고양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6> ‘위기 - 극복’의 반전 구조

전반, 용왕의 경우		후반, 토끼의 경우	
<위기>	<극복>	<위기>	<극복>
① 용왕 득병	도사의 兪간 지시	⑥ 용왕의 토간 요구	토끼 계교로 모면
② 토간 구할 사신 기피	자라 사신 자원	⑦ 범치의 모함	토끼 묘책으로 모면
③ 자라 모 육지행 반대	자라, 忠으로 설득	⑧ 자라의 충간	토끼 기지로 모면
④ 자라, 호랑이 위기	자라 기지로 모면	⑨ 토끼, 그물 위기	토끼 속임수로 모면
⑤ 여우 방해, 토끼변심	자라 설득으로 해결	⑩ 토끼, 독수리 위기	토끼 꾀로 모면

라. 강과 약의 대립적 구조

<수궁가>에서 보이는 공간적 배경은 수궁세계 : 육지세계의 대립적 구조이며, 등장 인물에 있어서는 ‘용왕 : 토끼’, ‘호랑이 : 작은 동물’간의 대립이다. 전자가 강자의 세계 및 강자라면 후자는 약자의 세계 및 약자라는 점

에서 결국 강과 약의 대립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립구조를 사회적 의미로 파악할 때 강자의 세계는 지배층의 세계로, 약자의 세계는 피지배층의 세계로 볼 수 있다. 또 강자의 인물은 정치귀족층이나 양반이요, 약자의 인물은 일반평민층이나 천민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공간적 배경의 대결에서는 육지 세계가 이기고, 등장 인물의 대립에서는 토끼나 작은 동물이 이긴다는 것은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 양반층에 대한 서민층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18-9세기 서민의식 세계의 반영인 것이다.⁵³⁾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과 <토끼와 자라>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위의 서술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강과 약의 대립 구조

세계(공간적 배경)의 대립		인물의 대립	
수궁	육지	용왕(자라)	토끼
		호랑이	작은 동물
지배층	피지배층	정치귀족층, 양반	일반평민, 천민
강자의 세계	약자의 세계	강자	약자
패배	승리	패배	승리

마. 기하학적 대칭관계

<수궁가>는 작품의 구조 자체가 기하학적으로 대칭되어 있다. 육지와 바다, 육지의 왕인 호랑이와 바다의 왕인 용왕, 육지의 하찮은 존재인 토끼

53) 인권환, 「<수궁가>의 설화적 구성과 사설의 양상」, 『토끼전·수궁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와 바다의 하얗은 존재인 별주부, 용왕에게 약이 되는 토끼의 간과 별주부에게 약이 되는 호랑이 쓸개, 별주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랑이와 토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왕, 별주부의 위계를 폭로하는 여호의 직언과 토끼의 위계를 폭로하는 범치의 직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뒤 베풀어지는 별주부의 산신제와 토끼의 용궁잔치 등의 대칭이 그것이다.⁵⁴⁾ 그러나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에서는 별주부에게 약이 되는 호랑이 쓸개 부분이 빠져 있고, 별주부의 산신제 부분도 <수궁가>에서와 달리 죽음의 위기 없이 행해지며 토끼의 위계를 폭로하는 이도 범치가 아닌 거북이다. <토끼와 자라>에는 별주부에게 약이 되는 호랑이 쓸개, 별주부의 위계를 폭로하는 여호의 직언과 토끼의 위계를 폭로하는 범치의 직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뒤 베풀어지는 별주부의 산신제 부분이 모두 빠져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수궁가>와 같은 양상의 대칭구조를 보임으로써 별주부와 토끼의 인간상을 대칭되는 양극단으로 제시하여 골계로써 양극단을 함께 부정하는 아이러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표 8> <수궁가>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대칭관계

내용 \ 공간	육지	수궁
왕	호랑이	용왕
하얗은 존재	토끼	자라
약	자라의 약(호랑이쓸개)	용왕의 약(토끼의 간)
생명 위협	호랑이가 별주부 위협	용왕이 토끼 위협
위계폭로	여호(별주부 위계)	범치(토끼 위계)
위기극복 후	토끼 수궁잔치	별주부 산신제

54) 전신재, 앞의 글.

4. 주제 분석

<귀토지설>에서 동해 용왕의 딸이 병든 상황에서 거북이 사신으로 가기를 자원했으니 그에게 던져지는 수용자들의 호의적인 시선은 따로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봉건주의적 논리와 시각으로 본다면 용왕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거북의 모습은 차라리 당당하기조차 하다.⁵⁵⁾ 그러나 근원설화인 <귀토지설>을 『삼국사기』 <김유신조>에 나오는 김춘추의 이야기와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거북의 충성보다는 당연히 토끼의 지략이 돋보이는 이야기가 된다. <귀토지설>이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극복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수궁가>는 ‘중세적 절대 지배 논리에 의한 충성심과 이 충성심에 대한 조선 후기 서민의 풍자와 비판’이다. <수궁가>에서 군신간의 불신과 용왕의 독선은 작품 형성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상좌다툼은 당시 지배층의 심한 권력다툼을, 토끼의 수궁행은 그 당시의 삶을 위협하던 사회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토끼의 승리는 권력의 부당한 횡포와 맞서 어리석은 강자를 무너뜨리는 서민의 지혜를 보여 준다. 즉 붕괴하는 봉건적 질서와 윤리 규범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이다.⁵⁶⁾ 근원설화에서 절대적 권위와 위엄을 갖춘 용왕은 <수궁가>에서 권위를 상실한 군주가 되어 세상의 조소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군주에 대한 우매한 충성은 조소의 대상이 되며, 이는 봉건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서민의식의 성장의 발로라 볼 수 있다.

설화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풍속·생활·사상·신앙 등이 녹아 있다고 했다. 김춘추의 위기극복 지략으로 사용되어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극복의 지혜’를 보여주던 설화 <귀토지설>은 1200여 년의 시공간을 건너오면

55) 민찬, 앞의 글.

56) 최정락, 앞의 글.

서 주제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된다. <수궁가>에서 희화화된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라는 더 이상 충신이 아니며 그 또한 지배층에서 소외된 또 하나의 피지배층이다. 토끼는 재기 발랄함을 간직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개인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서민의 한 전형이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주는 더 이상 만백성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므로 희화화된 군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끝없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며, 신랄한 조소와 풍자를 엮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토끼를 통해 조선후기 서민들의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을 엿보게 된다.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된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또한 사회에 대한 짙은 풍자를 내세워 지금의 병든 사회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인간들의 위선과 탐욕을 고발하고 있다. 그 속에서 토끼의 재치와 자라의 우직함이 조화를 이루는 정의사회를 꿈꾸게 한다. <토끼와 자라>는 교육연극용 대본으로써 연극적 재미와 함께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방적인 한 쪽의 승리가 아니라, 자라의 충성심을 부각시키면서 토끼의 지혜로움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자라의 충성심이 돋보이는 것은 ‘어질고 훌륭한 용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본고에 의하면, 봉건군주체제의 유지와 옹호에서 민중계층의 각성과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주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화는 시대와 사회 구성체의 변화에 따라 주제가 변화되고 새롭게 제시되는 과정을 맞이한다.

위에서 살펴본 주제 분석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9> 주제 분석

비교분석	근원설화	창본	再 構	
			어린이 창극대본	어린이 뮤지컬대본
제목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
주제 분석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극 복의 지혜	중세적 절대 지배 논리에 의한 충성심 과, 이 충성심에 대한 조선 후기 서민의 풍 자와 비판	토끼의 재치 와 자라의 우직 함이 조화를 이 루는 정의사회	자라의 충성심 과 토끼의 지혜 로움

Ⅲ. 설화의 교육 방법

Ⅱ장에서 살펴본 ‘근원설화와 재구된 텍스트 비교분석’을 통하여 Ⅲ장에서는 ‘설화의 교육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실제 수업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4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한다. 텍스트는 모두 유인물(도서 포함)로 제시하여 아동들이 먼저 읽어 볼 수 있도록 한다. 근원설화인 <귀토지설>은 아동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를 한 번 더 녹음자료로 들려준다면 아동들은 더욱 흥미를 느끼고 이 텍스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창본 <수궁가>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직접 읽히기에는 너무 어려운 낱말과 한문투 문장들로 가득하다. 현장에서 아동들에게 제시할 때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석한 아동용 해석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⁵⁷⁾ 아동용 해석본으로는 창본과 소설본 두 가지가 있다. 창본으로는 이현순의 『수궁가』가 있다. 여기에는 그림을 함께 곁들인 대본과 아니리 20, 창 17곡으로 구성된 21분 분량의 CD가 내장되어 있다. 창은 어린이 명창의 소리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책과 함께 아동들에게 직접 들려준다면 무척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소설본은 이청준의 판소리동화시리즈 『수궁가 - 토끼야, 용궁에 베풀하러 가자』가 있다. 이는 판소리를 동화로 수용하였기에 앞에서 텍스트로 제시한 <수궁가>를 아동들에게 제시할 때 아주 적합한 자료라 생각한다. 또한 두 작품 모두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현대적 의미로 재구되어

57) <수궁가>는 원본이 아닌 아동용 해석본을 제공한다. ‘고전문학 작품지도에서는 훈고 주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5, 387쪽)’는 점에 공감하며 아동들에게 해석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있어, 재구된 의미로 재해석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본고의 의도와 맞아떨어진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은 앞의 <수궁가>와 비교하며 읽을 수 있다. 특히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은 <수궁가>를 재구한 것이다. 앞의 해석본 <수궁가>는 참고로 읽게 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만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토끼와 자라>는 학예회 등을 통해 직접 공연할 수 있는 대본이다.

II장의 텍스트 비교분석을 통하여 교사는 이미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다. 이 텍스트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극놀이 체험 과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판단한다.

연극놀이 체험 과정은 4단계로 구성한다. 1단계는 내용 분석의 과정으로 텍스트 해석하기, 2단계는 인물 분석의 과정으로 역할 분석하기, 3단계는 구조 분석의 과정으로 장면 만들기, 4단계는 주제 분석의 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가 주된 내용이다.

연극놀이를 통한 텍스트의 이해와 체험 과정을 활용할 때 저학년(1, 2, 3학년)과 고학년(4, 5, 6학년)의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저학년은 아직 사고가 미성숙된 단계이므로 이미지 - 즉 동작, 행동 특성 위주의 연극놀이를 접근해야 한다. 고학년은 어느 정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이므로 말(언어) 위주의 연극놀이를 접근하여, 언어 중심의 연극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비판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텍스트 또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저학년은 <귀토지설>과 <토끼와 자라>, 고학년은 <수궁가>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제시한다. 저학년은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귀토지설>을 녹음자료로 들려 준 다음 <토끼와 자라>를 제시하여 비교하게 한다. 그리고 <토끼와 자라>의 뮤지컬대본으로 연극놀이 체험 과정에 참여한다. 고학년은 <귀토지설>을 들려주고, 아동용 해석

본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제시하여 비교하게 한다. 어린이 창작대본인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으로 연극놀이 체험 과정에 참여한다.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

단계별	과정	체험 내용	텍스트	
			저학년	고학년
1단계	내용 분석	텍스트 해석하기	<귀토지설> <토끼와 자라>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2단계	인물 분석	역할 분석하기	<토끼와 자라>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3단계	구조 분석	장면 만들기	<토끼와 자라>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4단계	주제 분석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토끼와 자라>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에 기초하여 수업에 적용할 때에는 과정에 맞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내용 분석의 과정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맞는 활동으로는 비교 텍스트 읽기, 내용 이해 및 텍스트 해석하기(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기, 줄거리 및 주제 파악), 줄거리 간추리기를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 읽기는 2주전에 과제로 제시하여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정확한 해석이 되도록 한다.

인물 분석의 과정은 역할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역할을 찾아 배역 분석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이다. 학습자 스스로 역할을 찾아 배역 분석하기는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

되는 역할을 직접 해 본 후 다른 인물로 역할을 바꾸어 해 본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스스로 찾게 된다.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는 토의 학습을 통해 인물을 분석하는 활동이다. 이 때 교사는 아동들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는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특성을 파악한 후, 인물의 정서적·심리적 상태를 파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는 감정을 넣어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성격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을 찾게 된다.

구조 분석은 장면 만들기를 통한 체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역할과 역할과의 관계 이해와 체험, 상호 대립 갈등관계, 극의 전개과정(발단-전개-위기-결말) 이해와 체험 활동이 있다. 극의 전개과정 이해와 체험은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통해 극적 관계를 이해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장면 만들기는 먼저 모둠별로 장면을 만든 후 학급 전체의 장면을 연결한다. 이때 교사는 모든 아동들이 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주제 분석은 토의 학습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체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체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 생각 정리하기(의견교환), 수용자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활동을 한다. 이때 학습자는 텍스트가 가진 주제를 학습자의 주체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설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연극놀이를 통한 체험 활동을 제시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어과 수업과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어 평소 수업 현장에서 하는 국어과 수업 ‘교수·학습 과정’과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을 함께 제시한다. 차례는 교수·학습 개요, 교수·학습 과정,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의 순이다.

연극놀이 이해와 체험을 통한 활동 내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별 활동내용

과정	체험 내용	활동 내용		학습시 유의점
		학습자	교사	
내용 분석	텍스트 해석	1. 비교 텍스트 읽기 2. 내용 이해, 텍스트 해석 『인물, 사건, 배경 파악』 『줄거리 및 주제 파악』 3. 줄거리 간추리기	· 텍스트를 읽기는 2주 전에 과제로 제시 · 읽기 지도를 통한 텍 스트의 충분한 이해 유도	텍스트 의 정 확 한 해 석 및 이 해
인물 분석	역할 분석	1. 학습자 스스로 역할 찾아 가기 『각자의 역할 해 보기』 『역할 바꾸어 해 보기』 2.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 나는 행동특성 파악』 『인물의 정서적·심리적 상태 파악』 『성격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 찾기』	·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 을 표현하도록 유도 · 모둠활동 및 토의활 동 안내 · 감정을 넣어 소리내 어 읽기 유도	모 둠 별 토 의
구조 분석	장면 만들기	1. 역할과 역할과의 관계 이 해와 체험 2. 상호 대립 갈등관계 파악 3. 극의 전개과정(발단-전개- 위기-결말) 이해와 체험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통해 극적 관계 이해와 체험』	· 칭찬과 격려 · 모둠과 모둠별 장면 연결하기	
주제 분석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1. 내 생각 정리 - 의견교환 2. 수용자의 관점에서 비판하 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내가 하고 싶은 역할』 『내가 만일 재판장이라면?』	· 의견선택과 의견교환 과정을 진행	토 의 및 개 별 학 습

1. 내용 교육의 방법 : 텍스트 해석하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텍스트 읽기이다.

텍스트 읽기는 학습자 스스로 혼자 읽기 과정을 통한 전체적 서사구조 파악, 소리내어 같이 읽기를 통한 인물의 구체적 정서와 행동특성 느끼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학습자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경 경험에 기초하여 내용을 해석하게 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⁵⁸⁾고 한다.

이러한 텍스트 읽기는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읽기 전 활동으로는 제목이나 배경 지식을 통해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다. 읽기 중 활동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 다만 글을 읽는 과정에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며 읽게 되면 글의 내용을 더 많이 회상할 수 있다. 또, 부분(문장, 문단)과 부분과의 관계를 보다 쉽게 파악하여 전체의 줄거리(요약)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전체적인 관계를 잘 파악하게 되어 생략된 내용을 쉽게 추론할 수 있으며, 주제 파악이 용이하다. 이렇듯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⁵⁹⁾ 또한 어떠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는 질문하기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학습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편견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 읽기 후 활동으로는 줄거리 간추리기, 독

58)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 5-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379쪽.

59)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책, 381쪽.

후감 쓰기, 다른 장르로 바꾸어 표현하기, 토의하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⁶⁰⁾ 이러한 읽기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저학년은 근원설화인 <귀토지설>과 <토끼와 자라>, 고학년은 <귀토지설>,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텍스트로 하여 비교 해석해보게 한다. 그 중 앞서도 언급했지만 창본 <수궁가>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직접 읽히기에는 너무 어려워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석한 아동용 해석본 <수궁가>⁶¹⁾를 제시한다. 이들 두 해석본을 2주전에 과제로 제시하여 아동들이 <수궁가>를 쉽게 접하게 한 다음 요약본으로 수업에 임하면 될 것이다. 또한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이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한 작품이기에 해석본 <수궁가>를 읽고 <수궁가>를 이해한 다음 <귀토지설>,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텍스트로 학습해도 <수궁가>는 자연스레 수용되리라 본다.

우리는 <토끼전>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다. 사전 배경지식을 토대로 하여 근원설화인 <귀토지설>과 <토끼와 자라>, <수궁가>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읽고 서로 비교하게 한다. 이 때 텍스트를 실제 수업시간에 갑자기 제시하면 독해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 읽기는 2주전에 과제로 제시하여 텍스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정확한 해석이 되도록 한다. 이 때 읽는 방식이나 초점을 달리하여 지도하면 더욱 좋다. 첫 번째는 혼자서 읽고, 두 번째는 각자 배역을 정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다. 혼자 읽기는 학습자 스스로 묵독하며 전체적 서사구조를

60) '읽기 활동'은 앞의 책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 5-1> 379~383쪽까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였음.

61) ① 이현순, 앞의 책.(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 창본 형식으로 아니리 20, 창 17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 명창의 창이 함께 소개되고 있어 부담없이 작품에 빠져들 수 있게 되어 있다.)

② 이청준, 앞의 책.(최근에 나온 판소리동화시리즈1 이다.)

파악하는 과정이다. 배역을 정하여 읽기는 소리내어 같이 읽기를 통해 인물의 구체적 정서와 행동특성을 느끼는 과정이다.

내용 분석의 과정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이므로 비교 텍스트 읽기, 내용 이해 및 텍스트 해석하기(인물, 사건, 배경 파악하기, 줄거리 및 주제 파악), 줄거리 간추리기 순으로 활동한다. 비교 텍스트 읽기는 사전에 과제 학습으로 제시되었다. 내용 이해 및 텍스트 해석하기 활동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새로 알게 된 내용과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을 관련지어 가며 글을 읽게 하면 내용을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등장인물이 한 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읽으면 더욱 재미있게 작품에 빠져들며 줄거리를 쉽게 요약할 수 있다. 작품의 배경, 등장인물이 한 일과 장면의 바뀔의 순서를 알아본 다음 중심 내용을 따라 줄거리를 만들어 보게 한다.

가. 교수 · 학습 개요

(1) 목표 확인하기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목표 확인하기

(2) 글읽기

- 텍스트 읽기

(3) 내용 파악하기

- 텍스트의 배경 알아보기
- 텍스트의 내용 알아보기

(4) 장면 파악하기

- 장면이 바뀐 순서 알기
- (5) 줄거리 요약
 - 등장 인물이 한 일을 장소의 바뀔에 따라 간추리기

나. 교수 · 학습 과정

(1). 수업목표 : 글을 읽고 등장인물이 한 일과 장면의 순서를 알 수 있다.

(2) 수업전개

(가) 목표 확인하기

- 동기 유발하기
 - 연극을 해 본 경험이나 구경한 적이 있으면 말하여 봅시다.
 - * 학생들의 발표를 듣고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세부 질문을 제시하여도 좋다.
 - 누가 등장합니까?
 -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 등장인물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글을 읽고 등장인물이 한 일과 장면의 순서를 알아봅시다.

(나) 글읽기

○ 텍스트 읽기

- 등장인물이 한 일과 장면을 생각하며 텍스트를 읽어봅시다.

(다) 내용파악하기

- 작품의 배경 알아보기
 -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 누가 등장합니까?

- 작품의 내용 알기

-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 용궁의 신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신하들이 다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자라가 숲 속을 찾아 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 토끼는 용궁을 빠져 나오기 위하여 어떤 꾀를 냈습니까?

- 용왕님(용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 장면 파악하기

- 장면이 바뀐 순서 알기

- 두 개의 제시된 텍스트는 모두 몇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 장면이 바뀐 순서를 말하여 봅시다.

- 발단 : 용왕님이 병이 들어 걱정하고 있는 장면(용궁)

- 전개 : 자라(거북)가 토끼를 찾아 유혹하는 장면(숲 속)

- 위기 : 위기에 빠진 토끼가 꾀를 내는 장면(용궁)

- 결말 : 토끼가 달아나는 장면(숲 속)

(마) 줄거리 간추리기

다.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텍스트 해석)

<표 12>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텍스트 해석)

단 계	형 태	교수 학습 활동	시 간	자 료 및 유 의 점
도 입	전 체 학 습	■ 동기유발 · 이야기 잇기 놀이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인물이 한 일과 장면의 순서를 생각하며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5'	· PPT자료
전 개	모둠 학 습	■ 학습 활동 및 안내 <활동1> 텍스트 읽기 - 비교 텍스트 읽기(과제해결) ① 혼자 읽기(묵독으로 읽기) ② 배역 정하여 읽기(소리내어 읽기) ③ 텍스트 읽기를 통한 정확한 이해 및 해석 <활동2> 텍스트 분석하기 ① 인물, 사건, 배경 파악 ② 장면의 변화 순서 알기 ③ 줄거리 파악 ④ 주제 파악 <활동3> 줄거리 간추리기 ① 줄거리 요약하기 ② 각 장의 중심사건 그림으로 그려 배열하기 ③ 모둠원끼리 줄거리 발표하기	30'	· 2주전 텍스트 읽기 과제 제시, 수업 중 텍스트는 요약본으로 대체 가능함.
정 리	전 체 학 습	■ 정리하기 · 줄거리 간추려 발표하기 ■ 차시 예고	5'	· 다른 모둠의 내용 바르게 인지

2. 인물 교육의 방법 : 역할 분석

인물 분석의 과정은 역할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역할을 찾아 배역 분석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활동을 한다. 직접 실연하는 과정이므로 저학년은 <토끼와 자라>, 고학년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텍스트로 한다. 전시 학습을 통해 이미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으므로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한다. 나라면 어떻게 할 지 생각하며 자기가 창조한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읽어보고, 또 역할을 바꾸어 읽어보기도 한다. 그 다음 각자가 생각한 인물에 대해 모둠끼리 토의하며 인물의 성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때, 모둠마다 각각 다른 부분을 제시하여 준다. 여러 모둠에서 나온 다른 장면을 분석함으로써 동일 인물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교사는 아동들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동이나 지문을 통해 인물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충분한 연습과 토의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성격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을 찾는다. 정서적 심리적 상태가 파악된 상태여서 감정을 넣어 소리 내어 읽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는 감정을 넣어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성격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을 찾게 된다.

가. 교수 · 학습 개요

- (1) 목표 확인하기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2)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 찾기(말, 행동, 지문)
 - 역할을 정하여 소리내어 읽기
 - 역할을 바꾸어 소리내어 읽기
- (3) 인물의 성격을 살려 실감나게 읽기
 -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읽기
- (4) 글을 실감나게 읽기
 - 모둠별로 텍스트를 실감나게 읽기
 - 평가하기

나. 교수 · 학습과정

- (1) 수업목표 :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알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극본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 (2) 수업전개
 - (가) 목표 확인하기
 - 동기유발하기
 - 作唱 <아기공룡 둘리> 들려주기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알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극본을 실감나게 읽어봅시다.
 - (나)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 등장인물의 성격 알아보기

· 인물의 성격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인물의 말이나 행동)

· 각 인물의 성격을 말하여 봅시다.

● 자라 : 충성심이 강하고 똑똑하며 인정이 있다.

● 용왕 : 남의 말을 잘 들어주나 어리석다.

● 토끼 : 잘난 체를 잘하지만 침착하고 영리하다.

(다) 인물의 성격 살려 실감나게 읽기

○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읽기

· 각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읽어봅시다.

(라) 글을 실감나게 읽기

○ 모둠별로 텍스트를 실감나게 읽기

· 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알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텍스트를 실감나게 읽어봅시다.

· 서로 역할을 바꾸어 읽어봅시다.

○ 평가하기

· 누가 어떤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배역을 정하여 봅시다.

· 정한 배역에 따라 텍스트를 실제 말하듯이 모둠별로 읽어봅시다.

다. 연극놀이 체험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역할 분석)

<표 13>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역할 분석)

단 계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전 체 학 습	▣ 동기유발 · 作唱 ‘아기공룡돌리’ 듣고 따라 하기 ▣ 학습목표 확인하기 ·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알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	5'	· 녹음자료 · PPT자료
전 개	모 둠 학 습 전 체 학 습	▣ 학습 활동 및 안내 <활동1> 학습자 스스로 역할 찾아가기(모둠별 부분 제시) 1. 전시 학습 상기 2. 스스로 역할 찾아 소리내어 읽기 3. 역할 바꾸어 소리내어 읽기 <활동2>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모둠별 토의학습) 1.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행동 특성 파악 2. 인물의 정서적·심리적 상태 파악 3. 성격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하기 <활동3> 인물의 성격 파악(전체 토의학습) 1. 인물별 성격 정리하기 <활동4> 인물의 성격을 알고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표현하기 1. 감정을 넣어 소리내어 표현하기 2. 인물의 성격을 알고, 알맞은 표정과 목소리로 실감나게 표현하기	30'	· 역할을 바꾸어 표현하고 토의 학습을 통해 인물의 성격 파악 ·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유도
정 리	전 체 학 습	▣ 정리하기 · 인물의 성격 발표하기 ▣ 차시예고	5'	

3. 구조 교육의 방법 : 장면 만들기

텍스트 해석과 역할 분석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찾았다. 구조 교육의 방법에서는 역할과 역할과의 관계, 그들 사이의 갈등관계를 장면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서로 대립되는 배경, 대립되는 인물, 대립되는 장면들을 찾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관계를 파악한다. 텍스트는 저학년은 <토끼와 자라>, 고학년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을 제시한다. <토끼와 자라>,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은 모두 공연을 위한 대본이라 각 장이 나누어져 있어 아동들이 쉽게 대립 및 갈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구조 분석은 장면 만들기를 통한 체험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역할과 역할과의 관계 이해와 체험, 상호 대립 갈등관계, 극의 전개과정(발단-전개-위기-결말) 이해와 체험 활동이 있다. 극의 전개과정 이해와 체험은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통해 극적 관계를 이해하는 체험활동을 하게 된다. 장면 만들기는 먼저 모둠별로 장면을 만든 후 학급 전체의 장면을 연결한다. 이때 교사는 모든 아동들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가. 교수·학습 개요

- (1) 목표 확인하기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2) 글의 짜임 및 장면의 변화 파악하기
 - 글의 형식적 짜임 알아보기

- 장면의 변화 알아보기
- (3) 글을 읽고 서로 대립되는 구조 알기
 - 서로 대립하는 배경 찾기
 -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인물 찾기
- (4) 사건의 전개에 따라 문단 나누기
 -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로 나누기
 - 각 문단의 요점 파악하기
 - 평가하기

나. 교수·학습과정

- (1) 수업목표 : 글을 읽고 형식적 짜임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통한 대립 구조를 찾고, 장면 만들기.
- (2) 수업전개
 - (가) 목표 확인하기
 - 학습목표 확인하기
 - 글을 읽고 형식적 짜임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통한 대립구조를 찾고, 장면 만들기
 - (나) 글의 짜임 및 장면의 변화 파악하기
 - 글의 형식적 짜임 알아보기
 - 장면의 변화 알아보기
 - (다) 글을 읽고 서로 대립되는 구조 알기
 -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인물 찾기
 - 서로 대립하는 배경 찾기

(라) 사건의 전개에 따라 문단 나누기

-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로 나누기
- 각 문단의 요점 파악하기

<표 14> 문단의 요점

텍스트	<귀토지설>			<토끼와 자라>		
	공간	장면		공간	장면	
발단	수궁	용녀 발병과 의원 토간 지시		수궁	용왕의 발병과 도사 토간 지시	
전개	육지	거북이 숲에서 토끼 유인		육지	자라가 육지 도착 후 토끼 유인	
위기	수궁	거북의 유혹이유와 토끼묘책		수궁	용왕의 토간 요구와 토끼의 묘책	
결말	육지	토끼의 생환과 거북 돌아감		육지	토끼의 생환과 자라 낭패	
				수궁	용왕쾌차, 잔치	

○ 평가하기 : <별주부전>⁶²⁾을 읽고 장면이 바뀐 순서 말하기

『장』 1장 : 신하들이 용왕님의 병을 걱정하고 있는 장면(용궁)

『장』 2장 : 도미 의원의 말을 듣고, 토끼를 잡으러 갈 신하를 정하는 장면(용궁)

『장』 3장 : 자라가 토끼를 찾는 장면(숲 속)

『장』 4장 : 자라가 토끼를 설득하는 장면(숲 속)

『장』 5장 : 토끼가 꾀를 내는 장면(용궁)

『장』 6장 : 토끼가 달아나는 장면(숲 속)

다.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장면 만들기)

62)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5-1> 초등학교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142~153쪽.

<표 15>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장면 만들기)

단 계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전체 학습	■ 동기유발 · <귀토지설> 이야기 듣기 ■ 학습목표 확인하기 · 글을 읽고 역할과 역할간의 관계와 상호 대립 갈등관계를 찾아 극의 전개과정을 알 수 있다.	5'	· 녹음자료 · PPT자료
전 개	모둠 학습 전체 학습	■ 학습 활동 및 안내 <활동1> 텍스트 읽기 『중』 전시학습 상기 『중』 모둠별 다른 부분 제시 <활동2> 역할과 역할간의 관계 이해와 체험 『중』 역할과 역할간의 관계 알기 『중』 역할과 역할간의 관계 장면 만들기 <활동3> 상호 대립 갈등관계 찾기(모둠별 토의학습) 『중』 역할간의 관계 체험 속에서 갈등 인지 『중』 모둠별 토의로 갈등 상황 찾기 <활동3> 극의 전개 과정 체험(전체 토의학습) 『중』 모둠별 장면과 장면 연결하기 『중』 장면 연결하기를 통해 전개과정 이해하기 <활동4> 극의 전개 과정 이해와 체험하기 『중』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체험 『중』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통해 극적 관계 이해와 체험	30'	· 역할간의 관계를 장면만들기를 통해 상호 대립구조 파악 · 모둠과 모둠별 장면 연결 체험
정 리	전체 학습	■ 정리하기 · 극의 전개 과정 설명하기 ■ 차시예고	5'	

4. 주제 교육의 방법 : 비판력 기르기

주제 분석은 토의 학습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 체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체험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 생각 정리하기(의견교환), 수용자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활동을 한다. 학습자는 텍스트 해석을 통해 설화의 원형과 수용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배역을 정하고 역할 바꾸기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설화의 세계를 체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극놀이를 통한 설화의 이해와 체험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텍스트가 가진 주제를 찾고, 학습자의 주체적 시각으로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일반적인 수업 형태라면 국어과 교수학습유형 중 이 부분은 ‘가치탐구 학습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치탐구 학습법’은 주어진 가치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분석,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재구성’해 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적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해당 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보기도 하고, 비판해 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또 다른 가치가 상존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홍부와 놀부’를 읽고, 흔히 놀부의 나쁜 점, 홍부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킬 수 있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꼭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이 가치 외에 놀부의 긍정적인 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병존해 있음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게 할 때에 이 유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해석하게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⁶³⁾ 여기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텍스트의 내용, 인물, 구조 교육의 방법을 배경지식으로 하여 ‘내가 만약 재판장이라면’⁶⁴⁾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진행한다.

가. 교수·학습 개요

- (1) 목표 확인하기
 -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2) 내용 파악하기
 - 글의 내용 파악하기
- (3) 중심생각 간추리기
 - 인물의 의견 간추리기
- (4) 내 생각 정리하기
 - 인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 정리하기-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의견 선택하기
 - 의견 교환하기
- (5) 이야기 주고받기
 - 인물의 역할 정하여 이야기 주고받기
- (6) 재판장이 되어 글쓰기
 - 내 생각 간단하게 쓰기
- (7) 정리·평가하기

63)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 국어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356~357쪽.

64)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3-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92~94쪽.

- 학습 내용 평가하기

나. 교수·학습 과정

- (1) 수업 목표 : 문단의 중심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2) 수업 전개

- (가) 목표 확인하기

-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 여러분은 토끼의 간을 꺼내려고 하였던 <토끼전>을 알고 있습니까?

- 자라는 나중에 무엇으로 용왕님을 살렸습니까?

- 학습 목표 확인하기

- (나) 읽기 활동하기

- 글읽기

- 토끼와 자라의 의견이 어떠한지 생각하며 ‘내가 재판장이라면’⁶⁵⁾을 읽어봅시다.

- (다) 내용 파악하기

- 글의 내용 파악하기

- 어떤 내용의 글입니까?(토끼와 자라가 재판장인 아이에게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며 바른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내용)
- 재판장이 말하는 ‘지난번 용궁에서 있었던 일’은 무슨 일을 말합니까?(자라가 토끼를 찢어 용궁에 데려가 간을 꺼내려고 했던 일)

65)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3-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92~94쪽.

- 토끼가 용궁에 따라간 까닭은 무엇입니까?(자라가 용궁에 맞는 음식과 진귀한 보배가 있으며, 큰 상을 줄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에)
- 자라가 토끼를 피어 용궁으로 데려가 까닭은 무엇입니까?(용왕님을 살리기 위해)
- 토끼는 자라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자라가 벌을 받아야 한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자라는 거짓말쟁이이고 흉악하므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 자라가 토끼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자신이 못된 동물이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토끼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 중심 생각 간추리기

○ 인물의 의견 간추리기

- 토끼가 재판장에게 말한 의견은 무엇입니까?(자라를 벌주라는 것)
- 토끼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자라는 거짓말쟁이이고 흉악하므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 자라가 재판장에게 말한 의견은 무엇입니까?(자신이 못된 동물이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토끼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것)

(바) 내 생각 정리하기

○ 인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 정리하기

- 토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토끼는 자기의 잘못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속은 것만 분해하고 있습니다. 토끼한테 처음부터 욕심이 없었다면 토끼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 자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은 무엇입니까?(자라는 용왕님 살리기 위하여 토끼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견 선택하기

- ‘내가 재판장이라면’에 나타나 있는 토끼와 자라의 의견 가운데서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까?

- * 토끼와 자라 가운데 한 인물을 선택하여 옹호하고, 다른 인물의 의견에 반박하도록 한다.

○ 의견 교환하기

- 토끼와 자라의 의견에 대한 내 생각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여 봅시다.

- * 토끼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과 자라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누어 서로 논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검사 팀과 변호사 팀으로 나누어 재미있게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사) 이야기 주고받기

○ 인물의 역할 정하여 이야기 주고받기

- 토끼, 자라, 재판장의 역할을 정하여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아) 재판장이 되어 글쓰기

○ 내 생각 간단하게 쓰기

- 글을 다시 읽고, 재판장이 되어 내 생각을 간단하게 써 봅시다.

- *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써 보도록 한다.

(자) 정리 · 평가하기

○ 학습 내용 평가하기

- 내 생각을 이유를 들어가며 잘 썼는지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다.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비판력 기르기)

<표 16> 연극놀이 체험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비판력 기르기)

단 계	형태	교수학습활동	시 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전체 학습	■ 학습목표 확인하기 · 문단의 중심 내용을 생각하며 글을 읽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	3'	· PPT자료
전 개	모듬 학습	■ 학습 활동 및 안내 <활동1> 내용 파악 『활동1』 전시 학습 상기 <활동2> 중심생각 간추리기 『활동2』 모듬별 장면 만들기를 통해 사건의 전개 확인 『활동2』 사건의 전개 과정별 중심 생각 파악 <활동3> 인물의 의견 간추리기(모듬별 토의학습)	42'	· 등장인물이 되어 의견 나누고, 토의 학습을 통해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전체 학습	<활동3> 내 생각 정리하기(개별 및 전체 토의학습) 『활동3』 인물에 대한 내 생각 정리 『활동3』 의견 선택하기 『활동3』 의견 교환하기 <활동4> 인물이 되어 토의하기(직접 실연하기) 『활동4』 토끼의 입장 『활동4』 자라의 입장 『활동4』 용왕의 입장 <활동5> 비판적 사고 확산-수용자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활동5』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활동5』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활동5』 내가 만일 재판장이라면?		· 자기가 하고 싶은 항목 선택하여 표현하기
정 리	전체 학습	■ 정리하기 · 재판장이 되어 비판적 사고로 내 생각 발표하기 ■ 차시예고	5'	

라. 학습자의 열린 교육적 관점

(1) 내가 만약 재판장이라면?

비판적 인식 능력 확장의 예로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3학년 2개 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가 재판장이라면’을 읽고 토끼와 자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내가 재판장이라면⁶⁶⁾

재판장 : 토끼님과 자라님은 지난번 용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토끼 : 재판장님, 자라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 자라는 저에게 용궁에 온갖 맛있는 음식과 진귀한 보배가 있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 용궁에 가면 큰 상을 줄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를 따라 용궁에 갔습니다.

용궁에 다다르자, 자라는 뽀뽀스럽게도 멀쩡한 제 배를 갈라 간을 꺼내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인데다가 흉악하기까지 한 자라한테 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물들이 언제 또 이런 일을 당할 지 모릅니다.

거북 : 재판장님,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리고 간 것은 토끼한테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못된 동물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왕님께서 몹시 편찮으셨습니다. 토끼의 간밖에는 약이 없다는데, 그걸 구하려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왕님을 살리기 위하여 저는 어쩔 수 없이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토끼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토끼는 제멋에 거워서 달콤한 말에 속았습니다.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토끼는 용궁에 따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장 : 토끼님과 자라님의 의견을 듣고 보니…….

<표 17> 토끼와 자라에 대한 자신의 의견

찬반의견	자라의 잘못	토끼의 잘못	둘 다 잘못	둘 다 잘했다	모르겠다	계
응답자	13	15	36	1	2	67

66)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3-2> 초등학교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92~94쪽.

아동들의 의견은 대체로 4가지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자라의 잘못이라는 관점으로 자라는 ‘거짓말로 친구인 토끼를 속여 흉악하게 간을 빼서 죽이려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토끼의 잘못이라는 관점으로 ‘허황된 욕심으로 인하여 앞 뒤 생각하지도 않고 자라의 달콤한 유혹에 속았으니 잘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토끼와 자라 둘 다 잘못했다는 관점으로 ‘허황된 유혹에 넘어간 토끼도 잘못이고, 선악의 구분도 없이 용왕님에 대한 충성만으로 중요한 목숨을 빼앗으려 한 자라도 잘못했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선악의 판단이 뚜렷하다. 아무런 노동의 대가도 없이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허황된 말에 속아넘어가는 토끼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용왕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생명 연장을 위해 아무리 미물이라지만 자신(토끼)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라의 무조건적이고 구시대적인 봉건윤리에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동들의 비판적 인식 능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5학년 아동들에게 <별주부전>⁶⁷⁾을 읽게 하고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로 써 보자’고 하였다. 아동들은 ‘토끼’에게 17명, ‘자라’에게 8명, ‘용왕’에게 3명, ‘꽃게’에게 2명, ‘상어’에게 2명이 편지를 썼다. 토끼에게 편지를 쓴 아동들은 한결같이 위기 상황에서 피를 내어 위기를 극복한 토끼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했다. 자신은 어려움에 닥치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한편으로는 거짓말이 들켰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며 좀 더 완벽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 용궁을 마음껏 구경하여 기쁜 견학이 되었을

67)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5-1> 초등학교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142 ~ 153쪽.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특이한 점은, 토끼에게 편지를 썼는데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어 나쁘다고 하였다. 토끼의 지혜도 훌륭하지만 백성이 슬퍼한다는 것이다. 자라를 주인공으로 택한 아동들은 자라가 토끼를 유혹하는 과정에서의 지혜는 돋보였으나 자신의 간이 배속에 있는데 토끼의 말을 믿은 어리석음을 탓했다. 그렇지만 모두 자라의 충성심은 칭찬하고 있었다. 용왕을 선택한 아동의 의견은 거짓말에 속은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이 보고 싶어 용왕의 신하로 태어나고 싶다는 아동도 있었다. 꽃게와 상어에게 편지를 쓴 아동은 서로 싸움을 하는 꽃게를 비웃고, 싸움을 말리는 상어의 침착함을 본받고 싶어했다.

<표 18>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아동들이 공감한 주인공	토끼	자라	용왕	꽃게	상어	계
응답자	17	8	3	2	2	32

(3) 내가 하고 싶은 역할

본 연구의 텍스트인 <토끼와 자라>를 대본으로 공연을 하는데, 대본을 읽은 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역할이 토끼였다. 이유는 토끼의 위기극복 지혜가 돋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이 용왕이었다. 수궁대신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용왕의 모습이기애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라는 3위를 차지했다. 대사도 가장 많고 장면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자라가 3위인 것은 조금 의외였다. 아동들의 대답은 토끼의 지혜로움이나 용왕의 카리스마에 비해 자라는 충성심은 있으나 미련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이 시대 아동들은 토끼

의 지혜를 본받고 싶어했다.

<표 19> 내가 하고 싶은 역할

하고 싶은 역할	토끼	자라	용왕	그 외	계
희망수	11	7	9	5	32

IV. 결론

우리가 설화를 교육하는 목적은 민족의식의 원형을 이해하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있다. 여기서 우리의 전통설화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설화 교육의 방법은 전통설화를 원형 그대로 이야기하는 방법, 설화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이해력과 비판력을 키우는 방법, 오늘의 관점으로 재구성하여 아동 스스로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는 방법 등이다.

II장에서는 <토끼전>의 근원설화인 <귀토지설>과 비교본인 <수궁가>,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토끼와 자라>를 텍스트로 하여 ‘근원설화와 재구성된 텍스트 비교 분석’을 하였다. 근원설화와 재구성을 비교하면서 내용 분석, 인물 분석, 구조 분석, 주제 분석으로 설화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어떻게 동시대적 상상력과 구조로 재구성되는가 알아보았다.

III장에서는 ‘근원설화와 재구성된 텍스트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이 중심이 된 설화의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내용 교육의 방법’에서는 텍스트 해석하기, ‘인물 교육의 방법’에서는 역할 분석, ‘구조 교육의 방법’에서는 장면 만들기, ‘주제 교육의 방법’에서는 비판력 기르기를 제시하였다. 또 수용자의 관점에서 설화가 현대적 의미로 재구성되면서 어떤 비판적 사고로 聽者에게 수용되고 있는가 밝혔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들은 나름의 다양한 시각들로 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이 서로 다른 아동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나름의 다양한 시각들이 지니고 있는 비판력과 탐구정신을 각각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문

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설화를 해석하고 수용할 때 일방적인 선악의 구분이나 기준을 제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관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가려주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탐구하고,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는 개념을 인식케 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설화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변형되며 재창조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연자를 통해 끊임없이 전승되는 설화를 동시대성을 가진 민족문화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劇化는 바로 이 동시대성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변형되는 텍스트 형성 과정이다. ‘연극놀이를 통한 이해와 체험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설화를 흥미롭게 접근하고 이해하면서 스스로의 판단력과 창조적 상상력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3-2>초등학교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읽기 5-1>초등학교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김부식, <귀토지설>, 『삼국사기』 권 41 열전 김유신조.
류기형,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국립창극단 창극대본, 2001.
서대석 편, 박봉술 창본 <수궁가>, 『구비문학』, 해냄출판사, 1997.
이청준, 『수궁가 - 토끼야 용궁에 베풀하러 가자』, 파랑새어린이, 2005.
이현순, 『수궁가』, 초방, 2003.
정진수, <토끼와 자라>, 성균관대학교 연극예술학과 공연대본, 2003.

<저서>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김동건, 『토끼전 연구』, 민속원, 2003.
김부식, 이재호 역, 『삼국사기』, 솔출판사, 1997.
서대석 편, 『구비문학』, 해냄출판사, 1997.
손동인, 『한국 전래 동화 연구』, 정음문화사, 1984.
인권환, 『토끼전 · 수궁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윤승준, 『동물 우언의 전통과 우화소설』, 월인, 1999.
최운식, 『설화 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최운식 외,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논문>

- 김열규, 「속임수의 명수들(1)」,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3.

- 권선영, 「구술성을 바탕으로 한 설화교육」,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정인, 「설화교육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권순금, 「토끼전의 인물형상과 풍자」, 『판소리연구』 제14집, 판소리연구회, 1999.
- 김미, 「설화교육론 : 고등학교 설화교육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민찬, 「토끼전 작품군의 우화수용양상에 대한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4집, 구비문학연구회, 1997.
- 박정운, 「<토끼전>의 교육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현순, 「동화를 활용한 동극에 관한 문화 기술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송영숙, 「초등학교 전래동화의 효율적 지도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신정순,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안순빈, 「이야기-극화활동을 활용한 재량활동 모형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여영택, 「전래동화의 연구」, 『국어국문학』 27, 국어국문학회, 1964.
- 염우영,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한 설화교육 방법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염지경, 「구성주의 교육이론에 입각한 설화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오시환, 「초등영어에서의 유창성 신장을 위한 동화극본중심 극화활동 지

- 도 방안」,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경숙, 「한국 전래 동화의 가치와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명재, 「영어동화 극화학습을 통한 초등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신장 방안」,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원수, 「〈토끼전〉의 형성과 후대적 변모」, 『국어교육연구』 14, 국어교육연구회, 1982.
- 인권환, 「〈수궁가〉의 삼입설화고」, 『인문논집』 제30집, 고려대 문과대학, 1985.
- 인권환, 「〈수궁가〉의 설화적 구성과 사설의 양상」, 『토끼전·수궁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인권환, 「〈토끼전〉의 구조와 주제」, 『토끼전·수궁가』연구,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인권환, 「〈토끼전〉의 비교 고찰」, 『토끼전·수궁가』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원, 2001.
- 임문혁, 「서정주시의 설화 수용과 시적 효과」, 『미원 우인섭 교수 정년 퇴직기념 논문집』, 동 간행위원회, 1991.
- 장태덕, 「전래동화의 극화활동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전신재, 「별주부와 토끼의 인간상」, 『구비문학연구』 제6집, 구비문학연구회, 1998.
- 정영철, 「전래동화를 이용한 극화활동이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운식, 「설화의 이해와 교육」, 『설화 고소설 교육론』, 민속원, 2002.
- 최정락, 「〈수궁가〉와 〈별주부전〉의 서술방법 대비고찰」, 『안동대학 논

문집』 제7집, 안동대학출판부, 1985.

한선영, 「〈토끼전〉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황진아, 「〈토끼전〉의 인물형상과 공간구조」,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